

예레미야 1

2020년 월 일 초판 발행

펴낸이 김광욱 김영준 이영란 정한조

펴낸곳 100주년기념교회

표지 이지영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46

전화 02-332-9177

팩스 02-332-9175

비매품

새벽묵상

이사야 2

34-66

100주년기념교회

새벽묵상

이사야 2

34-66



작성

예레미야 1:1-19 | 정한조
예레미야 2:1-19 | 최정운
예레미야 2:20-37 | 김광욱
예레미야 3:1-25 | 정한조
예레미야 4:1-31 | 이성실
예레미야 5:1-31 | 이성유
예레미야 6:1-30 | 정한조
예레미야 7:1-15 | 임용완
예레미야 7:16-34 | 이영란
예레미야 8:1-22 | 정한조
예레미야 9:1-26 | 정재규
예레미야 10:1-25 | 김대인
예레미야 11:1-23 | 정한조
예레미야 12:1-17 | 이창호F
예레미야 13:1-27 | 이영란

예레미야 14:1-22 | 정한조
예레미야 15:1-21 | 박성호
예레미야 16:1-21 | 정인철
예레미야 17:1-27 | 정한조
예레미야 18:1-23 | 백정수
예레미야 19:1-15 | 김광욱
예레미야 20:1-18 | 정한조
예레미야 21:1-14 | 이창호A
예레미야 22:1-30 | 강요섭
예레미야 23:1-32 | 정한조
예레미야 23:33-24:10 | 김소리
예레미야 25:1-38 | 이영란
예레미야 26:1-24 | 정한조
예레미야 27:1-22 | 김완영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1:1-19

1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2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십삼 년에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3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십일년 말까지 곧 오월에 예루살
 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4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르시되 5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6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7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
 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시고 9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10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
 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1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2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

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13 여호와
 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14 여
 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
 에게 부어지리라 15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
 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
 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6 무리가 나를 버
 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
 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17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
 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
 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18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
 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
 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19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 예레미야를 소개합니다

오늘부터 2-3개월 동안 예레미야 속으로 믿음의 순례를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에는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처음 다섯 권(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을 대선지서라고 하고, 그다음 12권(호세아-말라기)을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은 길이의 차
 이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애가는 5장으로 되어 있지만, 예레미
 야가 기록했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분류됩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레미야는 52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예레미야가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소선지서 12권보다 더 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으로 하면, 150편으로 구성된 시편이 가장 길지만, 사용된 단어 수로 하면 시편보다 예레미야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은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는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에 관한 내용이 적지 않지만, 그 내용이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국 유다가 망할 때, 시드기아왕의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되어 많은 백성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도 보았고, 심지어 여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여선지자였던 아내와 결혼하여 두 아들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표적(기적)을 행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그가 전하는 말씀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가 망해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2-3년만 지나면 돌아온다 했지만 예레미야는 70년이 지나야 돌아온다고 했기에 사람들은 그를 매국노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성경 예레미야를 더 잘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우리나라의

1800년대 후반부터 경술국치인 1910년까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 황성신문의 주필이었던 장지연 선생이 ‘이날을 목 놓아 통곡한다’는 의미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논설을 썼습니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애가는 나라가 기울어가다가 마침내 망하는 모습을 보고, 목을 놓아서 울며 씨 내려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1-10)

1-10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소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이었습니다. ‘아나돗’은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지명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4-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할 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는 음모에 가담했다가 대제사장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추방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힐기야도 무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요

시아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힐기야’와는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지방 출신, 금수저가 아닌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무명한 곳, 무명한 사람에게 시작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가난한 사람들의 도시 나사렛에서 자라시며, 목수의 아들로 자라실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이며, 또 우리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이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됩니다.

(2-3)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십삼 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십일년 말까지 곧 오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레미야의 사역 시기는 요시아 13년에서부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까지로 다섯 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까지 약 40년 정도, 그리고 그 후에 10년 정도 더 선지자로 사역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의 사역 기간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기간이 있습니다. 사역의 기간뿐만 아니라 생명의 기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기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실 때까지이고,

마치는 때는 하나님께서 고개를 가로저으실 때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가 임신이 되기도 전에 이미 아셨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구별해서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가진 현재의 그 어떤 연약한 모습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그가 행할 모든 사역을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전 세계 약 70억 인구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삶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역할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정해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6)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당시 예레미야의 나이가 14살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 성경학자는 당시 그의 나이는 18-20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와 우리의 다른 점은 그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소함, 연약함을 고백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반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가면 되고, 내가 일러주는 말씀을 전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모르고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부를 것인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그가 서야 할 자리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곳에서 섬겨야 할 사역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은 총명하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축구나 야구와 같이 팀으로 하는 운동에서 감독이 선호하는 선수는 재능이나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감독이 행하

려는 작전을 정확하게 수행해 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지겠습니까?

두 환상 -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11-19)

11-19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환상을 보여주시고, 격려하시는 것에 대해 증거합니다.

(11-12)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었습니다. 12절의 ‘지켜’ 앞에 작은 글씨로 (1)이라 쓰여 있습니다. 아래에 ‘히,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음이 비슷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샤케드’이고, ‘지키다’는 히브리어로 ‘쇼케드’입니다. 두 단어가 자음은 동일하고, 모음만 다릅니다. 살구나무는 우리나라의 매화처럼 가장 먼저 피어 봄이 왔음을 알리는 나무였습니다. 살구나무가 봄을 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전하게 한 심판이 분명히 임하는 것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14) 여호와와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 환상’이었습니다. 그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았는데, 재앙이 북쪽에서 임하게 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요시아왕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구가할 때였습니다. 중동의 최강 아시리아제국은 힘이 많이 빠져있었고, 다른 나라들도 유다를 넘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요시아왕은 종교개혁을 일으켜, 우상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새롭게 지켰습니다. 당시 표면적으로는 나라가 다시 중흥을 일으켜, 비상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의 신앙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고, 영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속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향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 손을 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마음을 굳게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옷은 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거나, 일할 때는 옷이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허리띠를 질끈 졸라매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신발끈을 묶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들은 말씀을 다 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사역이 쉽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몹시 두려운 일이라는 의미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18-19)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 땅’, ‘유다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 땅 백성’ 등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상대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 모두 상대해야 하는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고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복해야 할 성이 너무 크고 웅장하거나, 그 성이 쇠기둥과 놋성벽으로 되어 있다면, 그 성은 난공불락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견고한 성읍과 쇠기둥, 놋성벽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성읍과 쇠기둥, 놋성벽은 적들의 공격으로 인해 수 없이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읍과 성벽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민족의 성읍과 쇠기둥, 놋성읍으로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이 살고 예레미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뜻이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입니다. 예레미야는 조국의 멸망이라는 고통스러운 시대에 던져져 그 민족을 세웠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던져진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레미야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어떤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또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사회에 던져져, 그곳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예레미야로 사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예레미야 속으로 믿음의 순례, 말씀의 여행을 떠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부족하고, 연약하며, 참 보잘 것없이 여겨지지만, 예레미야처럼 주어진 소명의 길을 잘 걷고,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시고 통로 삼기를 원하실 때, 핑계를 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쓰임을 받는 것이 은총이요 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과정에 크고 작은 장애물이 있고, 때로는 산을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일이 있더라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던져 주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세어 보기보다, 우리에게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세워가는 예레미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려지지 않은 땅, 아나돗 출신이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야 함에도 당신의 조건을 핑계
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2. 예레미야는 스스로를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순종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3.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를 부르신 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는 데는 어떤 확증이
있었습니까?
4. 예레미야처럼 당신이 던져진 곳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예레미야 2:1-19

1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
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
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3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4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5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
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 하고 가
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6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
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 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 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
니하였도다 7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
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8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
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
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
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9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0 너희는 깃뎀 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달
 에도 사람을 보내 이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11 어느 나
 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
 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12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
 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
 진 웅덩이들이니라 14 이스라엘이 종이냐 씨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
 었느냐 15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
 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16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17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18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앗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19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러즉 네 하
 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장에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밝히며 살구나무 가지
 와 끊는 가마 환상을 통해서 유다의 암울한 미래를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이제 2장 상반부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악을 이야기하며, 백성이 행한 악과 이스라엘의 반
 역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배도 행위를 지적하며, 14절부터 19

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반역의 결과와 그에 따른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배도(1-14)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과거를 회상하시며 이스라엘의 과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그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2)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시기 곧 출애굽 광야의 시기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도 했지만, 그때만큼 하나님을 절실히 의지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농사를 짓지도 못했고 목축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보이지 않는 길을 가나안을 향해 묵묵히 걸어야 했습니다. 철저히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신랑 되신 하나님이 신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어 매 순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때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주셨던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마음이 웬지

설레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그 마음이 식어지고 현실에 안주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늘 우리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때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회상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였는지 깨닫게 해 주십니다.

(3)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신 것도 그 이유입니다. 성물이었던 이스라엘을 삼키면 그 나라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앗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물, 첫 열매였던 이스라엘이 점점 변질되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도 소원해졌습니다.

(4-5)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 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는 마치 법정에서 피고를 향해 선고를 앞두고 부르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불의함도 불의한 행위도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를 행함으로써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이스라엘은 이제 그 사랑했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6)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 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과거에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 구원하시고 광야 길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찾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대신, 바알과 우상을 찾고 숭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잘 나가고 성공하게 되면,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본분입니다. 우리도 지난 인생사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의 반역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7-8)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떠랐느니라

제사장들 역시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지식만 있고 하나님에 대한 전인적인 앎이 없는 율법가들,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던 정치 지도자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타락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심판과 징계였습니다.

오늘날도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삶과 안위를 살피기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합당한 지도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

니까? 하며 먼저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에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이곳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디에 계십니까?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일평생의 겸손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9-13절은 백성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 그러므로 내가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싸우다’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죄에 대해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에 대가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고통의 순간이지만 그러한 직면의 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불순종의 모습을 돌이키는 기회가 됩니다. 10-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증인들을 소환하십니다.

(10-12)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탈에도 사람을 보내 이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깃딤은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게달
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동쪽에 사는 게달 사람들
에게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입니다.

한낱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도 자신들의 신
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의리를 지켜서 자신들의 신을 끝까지 섬
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스
라엘의 배반은 하늘도 놀랄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향해 놀
라고 떨고 두려워하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어서 13절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악 2가지를 요약해 주
고 있습니다.

(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두 가지 악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를 위해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목이 마릅니다. 이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판 웅덩이, 곧 터진 웅덩이는 온갖 우상과 의지하는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을 담아서 사용해 보려고 웅덩이처럼 파서 물을 담지만 그것이 터져서 물이 빠져 나가 버립니다.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실망만 가져다줍니다. 혹시 스스로의 노력으로 웅덩이를 파는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악과 반역(14-19)

14-1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배도가 초래한 선민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현실을 지적합니다.

(14-15) 이스라엘이 종이냐 씨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여기서부터 전쟁 포로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종은 일반적인 노예, 씨종은 그 집에서 태어난 종을 가리키며, 포로는 전쟁 노예를 의미합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모습은 자기 백성의 대적이거나 타락한 자기 백성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앗수르 군대의 잔인성을 비유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앗수르의 공격으로 북이스라엘은 황폐화되었습니다.

15절이 앗수르의 침략을 의미했다면, 16절은 애굽의 공격을 가리킵니다.

(16-17)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놉과 다바네스는 모두 나일강 하류에 있는 애굽의 옛 성읍들입니다. 즉 애굽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 땅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정수리를 상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유다의 정수리를 상하게 한 사건은 요시야 왕이 전사한 므깃도 전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은 애굽과 앗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18-19)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앗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나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시홀’은 ‘검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고, 해마다 범람하는 나일강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마실 수 없는 진흙탕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그 강물’은 앗수르를 상징하는 유프라테스강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인 애굽의 나일강과 앗수르 강물을 의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대가는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잊어버린 결과가 악이요 고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열방들이 하나님을 찾고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교만하여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열방에 하나님을 소개하기보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선명한 반면교사로 다가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역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려 하심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들이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즐거움이, 때로는 명예나 권력이나 다른 것들, 곧 우상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해서 안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범하는 우리 죄를 들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롬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죄를 멀리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재능대로 맡겨주신 사명을, 주신 대로 다시 찾으시는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때를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충성된 청지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악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함에도 율법을 지키려고 더 힘을 쓰고, 더 많은 일들을 하려고 애쓰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서 나의 주장을 앞세울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과 삶의 기초가 온전한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그 위에서 모든 섬김과 봉사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각자의 재능대로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도 성실하게 넉넉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오늘과 우리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드러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1. 예레미야가 받은 소명을 따라 나아갔듯이 올 해 나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는 무엇이며 충성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가까이하기 위해 내가 가장 먼저 수정해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3. 죄에 대한 민감성이 없이는 하나님과 가까이할 수 없습니다. 성령충만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 하루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4. 주신 재능대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지체들과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며

예레미야 2:20-37

20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21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나 22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잣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23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24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육이 일어나므로 험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정기에 만나리라 25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갈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26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27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28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29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니라 30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
 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 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
 니라 31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
 하기를 우리는 놓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32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33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
 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34 또 네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35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
 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
 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36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앓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37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
 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
 씬을 전달할 사명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

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고소장과 같습니다. 이 고소장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함에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노예가 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주종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 3절에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을 애지중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부모 자녀 관계나 부부관계처럼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고소장 후반부와 그 고소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2장 8절에서 ‘싸우다’가 법정 용어로 ‘죄에 대해 다투다’는 의미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의자 이스라엘에 대하여 고소한 검찰이자 동시에 재판장으로서 공소 사실에 대하여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20절부터 25절이 이스라엘이 행했던 우상숭배에 대한 고소 내용입니다.

행음(20-25)

(20-21)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나

우상숭배 의식에는 숭배자들이 사제들과의 행음이 있기도 하지만, 여기서 행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3장에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내 이스라엘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남편과도 같았습니다. 아내 이스라엘은 남편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며 산 위에서와 나무 아래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몸을 굽혔습니다. 이는 남편을 배신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을 고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불륜의 사건의 피해자들의 호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부부의 도를 깨뜨리고 다른 남자 또는 다른 여자와 행음하는 사람의 배우자의 심정입니다.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순전한 참 종자의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상한 포도나무가 나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자연법칙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22)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22절은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하나

님께서 남편의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잣물과 비누는 오염된 것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생활용품입니다. 행음으로 더럽혀진 몸은 아무리 좋은 목욕용품으로 씻어도 씻기지 않는 것처럼 죄악으로 더럽혀진 몸은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오염물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비누로 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고난의 피를 알고 의지적으로 죄의 길에서 180도 방향을 전환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은 우상숭배를 행음으로 묘사하는 앞의 구절에 연이어 이스라엘을 발정난 동물에 비유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23-25)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비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혈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정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갈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부부의 도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겠다는 것은 발정난 낙타와 들나귀, 가축이나 들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불륜에 빠져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불륜의 대상

자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집을 나간 사람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욕에 혈떡거리고 발걸음의 방향을 제어하지 못하고 불순한 혀로 망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말이라도 하며 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륜의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나는 어떤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륜의 피해자로 보며 안타까워한다든지 아니면 불륜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파렴치한 인간으로만 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 빠져있거나 욱망에 쫓아 다른 것을 찾고 있지 않은 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라는 생각에서 ‘나도 이런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은 없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수치(26-37)

(26)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도둑이 절도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상이 공개되기에 수치를 당합니다. 요즘은 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신상공개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도둑이나 범 죄자가 자신들이 붙잡힐 때 신상이 공개된다고 생각한다면 절도

나 범죄를 쉽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들통날 것을 생각하지 못했겠습니까? 이들의 죄는 2장 8절에 있듯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대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습니다.

(27-28)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이스라엘이 돌과 나무를 향하여 나를 낳으신 아버지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비상식적인 말과 궤변을 잘 늘어놓습니다. 만약에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어떤 무익한 사람을 부모라고 말하며 실제 부모를 떠나간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환난 때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돌과 나무와 같은 무언가에 빠져 그것을 좇고 있다면 빨리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유다가 하나님 이외에 좇는 우상 신들의 수가 당시 성읍의 수만큼 많았다고 하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형상을 우상

으로 섬기지 않더라도 내가 환난당할 때에 그 환난에서 나를 건져줄 수 없는 무익한 것들을 좇고 있다면 그 개수만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29-30)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나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새나운 사자 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죄를 범한 사람들이 오히려 화를 내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며 대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때로는 부모처럼 자식을 사랑하여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채찍을 사랑의 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고도 자신의 재능에 맞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들어야 합니다.

(31)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놓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광야나 흑암의 땅이 되신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인생 길에서 만약 광야나 흑암의 땅이 전개되어 괴로워한다면 광야나 흑암의 땅이라는 보이는 현실만 본 것이며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상실한 사람은 주님께로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왜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겠습니까? 광야나 흑암의 땅이라는 현실만 보고,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광야나 흑암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 밖에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품, 교회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32)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신부가 결혼 패물과 웨딩드레스를 잊을 수 없다고 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잊은 날수를 셀 수 없다고 하십니다. 사순절을 정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자'고 강조해야지만 겨우 주님을 생각한다면, 나의 죄를 위하여 피흘리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제 또는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았는지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33)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이들이 좇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거짓된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야 하고, 가족을 사랑해야 하고, 교우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헛된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만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합니다. 악이 악을 낳는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34-35) 또 네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죄 없는 자를 죽이고도 그것을 정당방위라고 말합니다. 담 구멍을 뚫어 집안에 침입한 사람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율법(출22:2)을 악용하여, 범죄자들은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합니다. 모든 죄를 자신의 관점에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스스로 면죄부를 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의 법과 성경 지식만을 많이 쌓게 되면 유익한 것보다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바리새인들 이외에도 교회 내 이런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하고도 ‘나는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떤 잘못이나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자백하며 죄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36-37)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앗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징계와 끊임없는 권면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갔던 북이스라엘이 열강 앗수르에 의해 주전 722년에 패망으로 수치를 당했었습니다. 남 유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망하기 전까지 앗수르는 남 유다를 위협했습니다. 앗수르는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 남쪽 나라 애굽과 연합하여 전쟁을 벌이고자 했습니다. 이때에 남 유다 요시야 왕은 앗수르를 도우러 북쪽으로 가는 애굽의 느고 왕을 므깃도에서 가로막고 전투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애굽 왕은 북쪽에 가서 앗수르와 연합하여 바벨론과 전쟁을 하였지만 패하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왕위에 3개월만 있다가 애굽에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애굽에 의해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선고는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요시야 사후에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열강들은 하나님께서 버렸으므로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강한 것을 통해 약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강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금세 약하게 만드시거나 우리와 무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수 없었듯이 세상에 강하게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무력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행동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 행통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처럼 저희를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어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신부처럼 보호와 사랑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사랑을 잊고 살며,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등을 돌려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며, 그것이 저희를 강하게 해 줄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부부의 도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과 음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옵고, 바라보아야 할 분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의지해야 할 분을 의지함으로 행동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선지자 등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친히 고소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마음이 정결하게 씻겨지지 않는 한, 몸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잣물과 비누 또는 최고급의 목욕용품으로 씻을 수 없는, 나의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겠습니까?
3.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자신은 ‘깨끗하다’,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이외 세상의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자신은 ‘세상을 좇지 않았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불륜 행위처럼 하나님을 떠난 죄는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해서 남긴 발자취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4. 20절 “... 네 멩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와 30절 “...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에서 멩에와 결박과 징계의 유익함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내가 저야 할 멩에와 결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예레미야 3:1-25

1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므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2 네 눈을 들어 험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 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3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낮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4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5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6 요시아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7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8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

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9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
 거늘 10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11 여호
 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12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
 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
 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13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가
 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
 와의 말씀이니라 14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이 돌아오라 나
 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
 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15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16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
 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
 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
 며 17 그 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
 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18 그 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19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

라 하였노라 20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21 소리가 험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으로다 22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 심이니이다 23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24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 떼와 소 떼와 아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25 우리는 수치 중에 놀랐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 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혼당한 아내 비유(1-5)

오늘 본문 1-5절은 2:1에서 이어져 오는 내용인데, 유다 백성들의 우상숭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1)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므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어떤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아내였던 여인이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살고 있다가, 다시 첫 남편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첫 남편이 그녀를 받아 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하여, 여러 우상들을 돌아가면서 숭배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을 여인이 여러 남자와 살다가 처음 남편에게로 돌아오는 것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에서 살폈듯이 하나님은 유다를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신랑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2-3)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 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낮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산들이 나무가 없는 벌거숭이가 된 것은 음행을 저지르느라 뒹굴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산 위에서 우상숭배하기 위해서 제단들을 쌓았다가 허물고, 산당들을 지었다가 부수고 해서 나무가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상숭배가 만연하였던 것을 그림언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단비와 늦은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비’는 ‘소나기’인데, 우기가 시작되는 10-11월에 내리는 ‘이른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른비는 파종하는데 절

대적으로 필요한 비였습니다. ‘늦은비’는 3-4월에 내리는 비인데, 이 비를 충분히 받아야 곡식이 잘 여물게 됩니다. 늦은비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데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런 은총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삶 속에 내리는 하나님의 이른비의 은총과 늦은비의 역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상황이 그러함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4-5)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릴 때부터 친구와 같았다고 말하면서도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한숨 쉬며 말씀하십니다. 마치 자녀가 매일 부모에게 “아빠, 엄마! 사랑해요. 엄마와 아빠가 우리 부모님이셔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친구로 대해 주셨어요. 엄마는 언제나 저를 꼭 품어주셨어요.”와 같은 온갖 말로 친밀함을 표현하지만, 실제의 삶은 이웃에 사는 아저씨, 아줌마를 아빠 엄마로 부르고, 그 사람들과 시장도 가고, 놀이동산도 가고, 소원을 말하고 등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상숭배를 하는 유다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속이 터져서 가

숨을 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포로에의 권면(6-18)

6-18절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여 멸망의 길을 갔는데, 남유다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거기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6-7) 요시아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산마다 올라가서 음행을 하였고, 푸른 나무가 있는 곳에서 음행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여로보암왕은 단과 벧엘 등지에 금송아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놓고,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신 신이라며, 이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는 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의 날짜를 정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에는 모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거나, 하나

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던 왕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 것을 유다 백성들도 보았다고 하십니다.

(9-10)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우상숭배했는지,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고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각하고도, 충격적인 것은, 예레미야 선지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들을 때가 6절에 의하면 ‘요시아왕 때’라고 하십니다. 요시아왕은 다윗왕과 히스기야왕과 더불어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선한 왕이었습니다. 특히 요시아왕은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고, 거기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전국가적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사순절과 고난주일(주간)과 부활주일을 대대적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나라가 신앙적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정작 유다 백성들은 엉뚱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종교개혁,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국가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

을 그대로 갖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도, 또 교회에서 신앙사경회, 신앙세미나를 비롯하여 영적인 프로그램을 매주, 아니 매일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아니하면, 소위 좋은 교회라고 알려진 교회, 이름이 있는 교회에 다닐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교회’로 불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교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각자가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금방 좋은 교회가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죄의 중독성, 우리 각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에 탐닉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1)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을 갔지만, 유다는 이스라엘이 엉뚱한 길을 가다가 망한 것을 보고도 배교의 길을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50보이고, 유다는 100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앞에는 ‘배역한’이라는 단어가 있고, 유다 앞에는 ‘반역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1절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에도 이와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배역(매슈바)’는 ‘뒤돌아감’, ‘배교’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반역하다(바가드)’는 ‘속이다’, ‘불성실하게 행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내면이 부패하고 변질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 죄를 지었다면,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는 것이 더 나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 전에 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궁홀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3)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죄를 자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지은 죄는 세 가지인데, 첫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 둘째가 푸른 나무를 찾아다니며 엮드린 우상숭배,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 우상숭배,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단지 이스라엘의 특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역사상 모든 인간이 그러하였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15)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이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돌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우상숭배하는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내가 너희 남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였고, 유다 백성들도 그러하였는데, 그들이 섬긴 대표적인 우상이 풍요의 신인 ‘바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 남편이다.”에서 ‘남편’도 히브리어로 ‘바알’입니다. 우상을 가리키는 ‘바알’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너희는 바알이 풍요의 신인 줄 알고, 그를 섬겼지? 그는 실제의 바알이 아니야, 너희를 진정으로 풍요롭게 해 주는 너희의 남편인 너희의 바알은 나 여호와야.”라고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갈지라도 여러 목자를 통해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그들을 통해서 양육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올 때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학사 에스라, 총독 느헤미야 등을 통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지식과 명철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목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죄에 포로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지식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배역과 회개(19-25)

19-25절은 이스라엘의 배역과 회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9)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이 구절의 특이한 점은 서두에 “내가 말하기를”이라고 했

는데, 중간에 또 “내가 다시 말하기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독백, 즉 하나님께서 그 심중에 품고 계신 계획이나 의도, 희망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땅을 유산으로 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떠나지 않으리라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주님이 되시고, 언덕에서 드린 제사와 산에서 드린 제사가 그저 우상숭배에 불과했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떼와 양떼 심지어 자녀들까지 바알에게 빼앗기기만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25) 우리는 수치 중에 늪졌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동안에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보니, 수치는 요와 같고, 치욕이 이불과 같다고 합니다. 즉 모든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목소리(말씀)를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과 같고, 하나님을 가지면 아무것

도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른 민족에 비하면, 5달란트 아니 50달란트, 500달란트를 가진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 1달란트도 받지 못한 것과 같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진정한 바알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한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특별한 은총을 입은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꺼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후손으로 메시아까지 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00주년기념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만족을 누리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있게 하신 자리에서 받은 달란트대로 주님께 충성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당신이 하나님께 가장 불성실하게 살았던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2. 좋은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3.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어떻게 양육을 받으셨습니까?
4.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4:1-31

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2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
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3 여호와께서 유다
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
불에 파종하지 말라 4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
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
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
을 끝 자가 없으리라 5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6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
져오리라 7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
왔도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
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8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굶은 베를 두
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9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10 내가 이르

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11 그 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12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13 보라 그가 구름 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14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15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16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면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17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8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19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20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21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22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23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24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25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26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27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
 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28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
 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
 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라도 29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
 는 사람이 없나니 30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
 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31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
 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혈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
 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
 다 하는도다

오늘 본문은 유다를 심판 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1-4
 절까지는 심판을 말씀 하시면서도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5-18
 절까지는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19-31절까지는 반복되는 경고
 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유다에 재앙이 임한다는 내용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1-4)

(1-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로 돌아오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언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장소는 에덴동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기 전, 그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상낙원인 에덴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곳에 아담을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동산의 아담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영원히 살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살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차이가 있었다면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못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아담을 구분 짓는 유일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갖지 못한 것, 선악과마저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갖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아담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 내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부터 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내게 있는 부족함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3-4)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농사에 관한 비유입니다. 즉 농부가 기정하지 않은 땅에는 씨앗을 뿌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회개치 않는 마음에는 은혜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할례에 관한 비유입니다. 유대인의 할례는 선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러나 몸에 하는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내적인 변화 없이 외적인 신앙의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과 선택받은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이 자신을 선민으로 택하셨으며, 서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언약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맺는 것인데, 유다 백성들은 약속을 맺고도 그 약속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임박한 심방을 경고하시는 하나님(5-18)

그 결과, 5-18절에서는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7)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 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유다를 멸하는 자를 수풀에서 나온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배부른 사자는 사냥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자가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수풀에서 나왔다는 것은 배고픈 사자가 사냥을 하기 위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자가 다시 수풀로 돌아가겠습니까? 배고픔을 해결한 다음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전까지 사자는 다시 수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수풀을 나온 사자가 배고픔을 해결하기 전까지 그냥 돌아갈 수 없듯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멈출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10)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다고 말합니다. 속인 자가 있다면 속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인 자는 하나님, 속은 자는 유다 백성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귀담아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속이셨다고 말합니다.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고는 갑자기 멸망시키겠다고 심판의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신칭의’ 교리에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기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 행위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의 삶은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단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하면, 욕심과 욕망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안심이다’ 생각하며 살다가는 언젠가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크게 속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11) 그 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혈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하나님의 심판은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알곡과 껍데기를 구분하기 위한 키질도 아니고, 연단을 목적으로 주시는 시험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14)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유다는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궁극적인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사건이 하나님 모르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실은 필연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지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각이 없는 사람은 향체가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몸에 향체가 있는 사람은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해 들어왔을 때, 넉넉히 이겨 건강을 유지하지만, 향체가 없는 사람은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지각하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지각이 없으면, 죄악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지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유다에 재앙이 임함(19-31)

이제 19-31절까지는 반복되는 경고에서 회개하지 않는 유다에 재앙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23-28)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걱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라다

회개하지 않는 유다에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
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이 빛을 잃었습니다. 산들
은 진동하고 요동하여 새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온 땅이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진멸하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노
아의 시대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의 진노로 인해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진멸하
지는 않으셨습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
지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멸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자각해야 합
니다. 그럴 때만 죄악으로 우리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아니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지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주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넷째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2.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3.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때는 주로 언제입니까? 다시 말해서 유독 시험에 약한 부분이 나에게서 무엇입니까?
4. 유독 시험에 약한 부분을 말씀으로 새롭게 보수하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입니까?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예레미야 5:1-31

1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2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3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4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와 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5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와 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명예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6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7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임 8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 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지르는도다 9 여호와와 의 말씀이나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별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10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1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12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13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14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불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15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16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17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 떼와 소 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18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19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20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21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22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23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24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25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26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덮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27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변창하고 거부가 되어 28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29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0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31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술되어 있으며 14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20절부터 마지막 절인 31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유다의 죄악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성(1-13)

(1)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어찌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바른 것을 실천하며 참되게 살려 애쓰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어떻게든 용서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본심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가기 위해 당신의 백성일지라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품어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2)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유다 백성들의 삶은 이중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말과 삶이 다른 외식적인 삶이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3)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징표로 그들을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백성은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교훈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4-6)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멩을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충분히 알고 있을 법한 지도자들 또한 일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개의치 않고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들처럼 방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7-9)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임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 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어떻게든 용서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유다 백성은 영적인 간음 외에 성적으로도 타락한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긍휼을 베풀며 참아오셨던 하나님은 이제 징계를 결심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더 이상 방관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단기간에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고 한편으로 교훈해 주신 끝에 내리시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는 그 징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심 끝에 내리신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낙심해서도 안됩니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끝에 내리신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방법(14-19)

이제 14-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유다백성을 징계하시는데 대한 내용입니다.

(14)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불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백성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그 어떤 재앙도 자신들을 덮치지 않을 것이요 전란이나 기근 또한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계셨고 계속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불로 상징되는 심판을 단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5-17)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 떼와 소 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피멸하리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는 강대국이며 역사가 오

랜 나라, 바벨론이었습니다. ‘그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라는 뜻은 바벨론의 군대가 적군의 목숨을 단숨에 앗아갈 수 있는 활숨씨를 지니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전투력을 바탕으로 바벨론은 침략하는 나라의 국토를 유린하며 강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 백성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파멸’의 대명사인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를 위해 기다려주시며, 회개를 위해 교훈도 아끼지 않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무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준엄한 방법으로 징계하시는, 엄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재앙이나 전란, 기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며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며 교만한 말을 뱉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뱉어낸 그 방법 그대로 유다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악인이 행한 악이 그대로 자신에게 되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행한 악의 결과가 그에게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는 자는 악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을 심는 자는 선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십니다. 비록 부정과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이지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인생 앞에 선을 심으며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언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유다 사회내 죄악상(20-31절)

20-31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유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22-24)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하지도 아니하니

신앙이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휼을 베풀어주시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다는 경외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목을 꺾어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떠나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지 않았습시다.

그처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상실한 유다 사회 내에는 여러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26-28)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변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 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마치 사냥꾼들이 새를 잡기 위해 덫을 놓듯이 자신의 탐욕
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속이는 일들이 빈번했으며 자기의 잇속
을 채우기 위해 불공정한 재판도 마다하지 않았습시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31)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백성들을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
했으며 제사장들은 제멋대로 백성들을 가르쳤고 백성들은 오히
려 그런 그들의 행태를 좋다고 여겼습시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예언하며 자기들 마음에 들도록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궁핍하신 하나님께 대해 경외심을 잃은 사회는 이처럼 부정과

부패의 도가니가 되어버립니다. 30절의 표현처럼 죄악이 판을 치는 무섭고 놀라운 땅이 되고야 맙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참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경외심을 잃고 우리의 소욕만을 좇아 간다면 우리 내면은 탐심으로, 우리 삶은 불의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찢으며 하나님의 징계를 유발하게 됩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것은 사실 부족함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모자랄 것이라는 염려 속에 자꾸만 움켜쥐려는 것입니다. 어찌면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염려가 예수 믿기 전 우리 영혼을 움아매고 있었 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예수 안에서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도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요 죽음이 곧 영원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는, 영원을 소유한 삶입니다. 그러기에 염려 속에서 오히려 염려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삶에 대한 염려는 내려놓고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과 연합해 나가심으로 오늘을 영원에 잇대어 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가던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사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공의의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경외심을 가지고 오늘도 선을 심게 해 주시고 모든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주님과 연합하며 오히려 염려 속에서 주님의 은총을 발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1절)' 는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십니까? 그 하나님께 자백하고 싶은 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2. 유다백성들은 재앙과 전란, 기근이 자신들을 엄습하지 못한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12절).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징계 방법을 취하신다고 하십니까(15-17절)?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까?
3.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다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말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24절).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4. 하나님은 공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떤 선을 심으시겠습니까?

듣지 아니하며 거절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 6:1-30

1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벧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옴이니라 2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3 목자들이 그 양 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4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5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6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별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박한 것뿐이니라 7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8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9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갭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10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 11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

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
 리로다 12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13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
 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4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15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하지 않을 뿐 아
 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
 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
 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16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
 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
 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
 겠노라 하였으며 17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18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이 들으라 무리들이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19 땅이여 들으
 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
 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20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나 나는 그들의 번
 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21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
 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2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
 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23 그들
 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
 호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 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24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
 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
 도다 25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26 딸 내 백성이 굶은 베를 두르고 재
 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음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27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28 그들은 다 심히 반
 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
 라 29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
 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30 사람
 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
 이라

예루살렘의 포위(1-8)

예레미야 2-6장은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특히 3-6
 장은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갔던 길을 유다도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유다의 수도 예
 루살렘이 함락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1) 베냐민 자손들이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벧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옴이니라

1절에 3개의 명령형 동사가 있습니다. ‘피난하라’, ‘나팔을

블라’, ‘깃발을 들라’입니다. 이것은 상황이 굉장히 다급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은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예루살렘 히브리대학이 해발 827m위에 세워졌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북한산이 해발 836m이니,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함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전투기가 있지만, 당시에는 말을 타거나 발로 걷는 것이 전부였으니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진 또 하나의 이유는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무너지게 하실 리가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도망가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난하라는 권면을 ‘베냐민 자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제유법’입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에서 ‘빵’이 제유법적 표현인데, 빵이 ‘먹을 것 전부와 물질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들’은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를 뜻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는데, 그때 남쪽에 남은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작은 지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작은 지파를 통해서 유다 전체에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방에서 오는 재앙을 ‘엿보아왔다’는 오래전부터 예루살렘 정복 계획을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북방에서 오는 침략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2-3)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 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리고 ‘목자들과 그 양 떼’는 ‘침략자’들을 뜻합니다. 침략자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면,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파괴되어 사람들은 살지 못하고, 그저 양떼를 방목하는 곳이 될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침략은 북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하는데, ‘내(하나님)가 멸절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징계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지켜진 것이 단지 높은 곳에 있거나, 성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인데,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5)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들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북방에서 오는 침략자들은 ‘정오’와 ‘밤’에 공격한다고 합니다. 고대에 전쟁은 일반적으로 아침에 시작했다가, 한낮에는 작열하는 태양으로 인해서 잠시 휴전하고, 다시 시작해서 어두워지면 그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전쟁을 치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정오’와 ‘밤’은 전쟁을 하지 않는 시간임에도 그때 공격을 한다는 것은 전쟁을 멈출 수 없을 만큼 정복야욕이 크다는 것과 오침과 취침시간처럼 방심하거나 약해진 때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제발 내 말을 들으라고 호소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등을 돌려 하나님이 없는 삶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속이려는 삶,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촉구하십니다. 잘못된 자식의 손을 잡고,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벌을 받도록 하는 부모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쌈통이다. 이젠 교도소에서 주는 건강식인 콩밥을 먹으니, 이젠 더 건강해지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때 부모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회개의 거부(9-21)

9-2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유다에게 내리는 심판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포도를 수확할 때에 다 따지 말고 꺾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명하셨습니다 (레19:10; 신24:21). 하지만 당시 유다 백성들은 탐욕에 이끌려 전부 다 따습니다. 그것처럼 유다도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9절).

(10-11)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도 수확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라고 수사적문문으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은 화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호소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자신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로 유다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유다가 파국의 길로 가게 된 데는, 특정한 부류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잘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3-14)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노아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탄식하셨는데, 예레미야의 시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작은 사람과 큰 사람 가릴 것 없이 탐욕적이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거짓을 행했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감언이설로 선포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상태가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병세가 심각한데, ‘머큐로크롬_빨간약’을 발라주거나 1회 용 밴드를 붙여주고서 “괜찮아질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전하는 것은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도 불행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도 불행입니다. 설교자가 창세기 1:1에서 요한계시록 22:21까지의 모든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도 복됩니다.

15절에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16절과 17절에 보면 백성들은 선한 길(좋은 길)을 발견해도 가지 않았고, 파수꾼이 부는 나팔 소리도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재앙을 내리시고, 제사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두신 장애물로 인해서 다 넘어지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에는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시 119:165),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 평안도 없고, 장애물도 있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장애물을 걷어주시는 분이신데,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장애물을 두시는 분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멸망전야, 북방에서 오는 침략자(22-30)

22-30절은 북방에서 오는 민족을 통해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며, 다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2-2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 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북방에서 오는 민족은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아시리아를 무너뜨렸고, 애굽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바벨론의 활을 쏘는 부대와 창을 사용하는 부대는 다른 나라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미국과 중국이 연합해서 대한민국을 쳐들어오는 느낌일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풀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출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워할 것이며, 사방에 원수들이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밭에도 길에도 다닐 수가 없고,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가슴

이 찢어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7)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의 ‘망대’와 ‘요새’로 세워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망대’는 살피는 것이 목적이려면, ‘요새’는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시금자와 분석자(an assayer and a tester)’로 번역할 수 있고, 다른 역본들도 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마음의 완악함이 놋쇠나 무쇠와도 같았고, 완전히 오염된 금속은 풀무불에 넣어도 정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죄악으로 완전히 오염되어서 죄악이 제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가 ‘내버린 은’과 같다고 말합니다.

자동차에 휘발유가 부족하면 경고등이 켜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가 그 순간에 멈추지는 않습니다. 경고등이 켜져도 한 동안은 달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하여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 경고등을 무시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우상숭배를 통해서

솔로몬의 화려함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찢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내버린 은'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원된 은'으로 회복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 찢어진 관계가 아니라 연합된 관계에 있을 수 있게 되어, 우리가 가진 염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비롯하여 여러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그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장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을지라도, 결국은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라가 망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이방으로 끌려가서 고통과 서러움, 서글픔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을 때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다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의 염려를 걷어내는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까마귀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한 유다 백성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귀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구현되는 은총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 예루살렘이 아름답고 우아하였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로 황폐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답고 우아한 당신이 지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2. 유다 백성들은 탐욕적이었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평강이 없음에도 “평강하다, 평강하다”고 거짓을 말했습니다. 당신이 들은 말씀 중에 당의정(糖衣錠)같은 말씀은 무엇이었습니다니까? 또 당신의 폐부 깊이 찢려 당신을 새롭게 한 말씀은 무엇이었습니다니까?
3. 유다 백성들의 상태는 심한 오염으로 순은을 뽑을 수 없어 ‘내버린 은’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오염된 부분을 정직하게 주님께 내어놓고 새롭게 해 주시기를 중심으로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4. 거짓된 말씀과 오염된 신앙에 유혹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

예레미야 7:1-15

1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2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3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 곳에 살게 하리라 4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와 성전이라, 여호와와 성전이라, 여호와와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5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 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7 내가 너희를 이 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8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9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2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

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13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4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곳에 행하겠고 15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으라(1-15)

(1)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맡깁니다.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담아줍니다(1:9). 말 그대로 예언(預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생명을 걸고 이 맡겨진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의 26장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이 설교로 인하여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이건 가짜다!"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여호와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까?

당시 성전 안에는 종교적 행위와 경건의 흉내, 거룩의 겉치레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서의 예배와 일상의 삶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표리부동의 모습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거룩의 자태를, 그리고 일상에서는 버젓이 악한 짓을, 동시에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9)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는 성전을 오고 가는 유다 백성들이 하는 소행입니다. 성전 밖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토록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부르고 찾으면서도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보고 우습게 여깁니다. 도둑질합니다(8계명). 살인합니다(6계명). 간음합니다(7계명). 거짓 증거하며 사람을 곤궁에 빠뜨립니다(9계명). 심지어 우상을 품고 다니며,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다른 신들을 따릅니다(1, 2계명).

그들의 성전의 예배와 일상의 삶은 이처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불행하게도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부정한 행실에 대한 각성이나 돌이킴도 없이 그저 성전에 가서 제물을 많이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제물과 예배를 드리면, 안정과 살롬을 달라고 하며 종교적 거래를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역겨움에 견디지 못하고 지쳐하시는데

도 말입니다.

(새번역, 사1:11-15)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숫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려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 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끊어지기에 나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은 온갖 죄들로 찌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10)고 떠들어댁니다.

(10)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일갈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정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다. 너무 싫다." 왜 그렇습니까? 가증함! 때문입니다. 안티기독교 운동가중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증함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큼니다. 목사와 장로의 자녀들도 많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이 가증함을 일갈합니다.

(공동번역. 마23:27-28)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겉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이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옳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교우님, 우리 안에도 크고 작은 이 가증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바울조차도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롬7:24). 우리의 다짐과 결단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통렬한 회개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주시는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박합니다. "우리 주님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내 가증함이 함께 못 박혔나니"(갈2:20), 그 절절한 고백과 은혜가 절실합니다.

(14-15)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남유다의 운명이 이미 파괴되어 버린 실로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15)'이라는 표현은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의 몰락과 패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외치십니다. "이제 남유다, 너희를 쫓아내리라!" "실로의 멸망과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보라. 이제 너희의 끝도 멀지 않았다!"

교우님,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왜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통렬한 회개는커녕 왜 도리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성전을 번질나게 드나드는 그들이 말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군중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이신 그분을 왜 가차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제일의 계명으로 알고 그 계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들이 말입니다.

아니, 왜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에 '아멘' 하며 은혜를 입고 나서, 예배실을 나오자마자 염려합니까? 왜 우리는 꽃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그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나를 입히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새번역, 롬3:9-11)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이것이 인생의 가련함 아닙니까? 죄 된 우리 실존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도 들꿀도 입히고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 우리 맞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그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 가십시오. 흔들흔들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살아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가증하고 가련한 유다 백성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왜 '여호와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4)
2. 왜 유다 백성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입니까?(9)
3. 유다 백성 안에 있는 그 '가증함'(10)이 오늘 내 안에는 없습니까? 있다면 어떤 모습입니까?
4.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오늘의 나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예레미야 7:16-34

16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17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18 자식들은 나무를 쥘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19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격노하게 함이나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20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 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 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1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22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23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24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

지 아니하였으며 25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26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
 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27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28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
 희 하나님 여호와와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서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29 너의 머리털
 을 베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30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
 의 눈 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
 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31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렸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32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라 날이 이르면 이 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
 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33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
 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34 그 때에 내가 유다 성
 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기도하지 말라(16-20)

왜곡된 성전 신앙과 연루된 선민의 타락상을 지적하고 파멸을
 경고한 앞 절에 이어 16절에서 20절 말씀은 선민의 신앙 오염

에 대한 결과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혼합주의 신앙에 빠진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16-18)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니라. 자식들은 나무를 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과거 아브라함에게 타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또 극악하며 잔인하기로 정평이 난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위해서는 요나 선지자를 파송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위해 오늘 본문은 기도하지 말 것을 선지자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극렬하게 거부하고 기만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는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신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일시적인 금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를 금지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이 있기 전부터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

절히 중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유다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셨고, 심판을 거친 후에야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신 이유는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크다는 사실과 함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를 할 때 은폐된 공간이나 사람의 왕래가 뜸한 곳에서 자행한 것이 아니라 성읍과 길거리에서 공공연하게 보란 듯이 타락한 신앙에 빠진 백성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통해 죄를 물으십니다. 18절의 하늘의 여왕은 앗수르와 바벨론 등에서 섬겼던 ‘이수타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늘의 황후나 하늘의 여주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신을 위해 온 가족이 열심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줍고’, ‘피우고’, ‘반죽하며’라는 표현을 통해 죄에 몰입하여 분주하게 움직이는 장면이 눈앞에서 보이도록 전달하고 있습니다.

(20)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 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 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상숭배에 빠진 유다 백성의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

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될 바벨론에 의해 유다에 속한 모든 것이 황폐화되고 파멸될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세상을 즐기면서 적당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편승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에 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보내었으나(21-28)

21절에서 28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 온 고질적인 현상임을 이스라엘 역사의 전반에 나타난 불순종을 들어서 지적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제사 의식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신앙관을 교정하기 위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스스로 걷어차 버린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24)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선민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점차 악화하여 결국 배반의 길로 치닫고 말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듣지 않으려는 고의성을 강조하여 표현한 말입니다.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과 거절로 일관하며 즉각적으로 그것을 대체할 것으로 자신들의 악한 본성과 악한 마음의 꾀를 따르며 그것이 요구하는 것에 주저함 없이 순응했음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스라엘이 행한 배반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 누구도 왕 앞에서 등을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을 보인다는 것은 변덕, 변심, 변절, 배신을 의미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왕 앞에서 물러날 때에는 뒷걸음질하여 물러나야 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얼굴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질시하고 미워하며 인격적으로 모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고발하고 계십니다.

(25-26)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일관하였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반복해서 보내고 또 보내셨지만 그들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성경말씀을 통해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헛된 것과 조각한 신상과 하늘의 여왕을 섬겼다면, 오늘 우리가 재물과 명예와 자녀라는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어리석어 보이는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통곡할지어다(29-34)

29절에서 8장 3절 말씀까지는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폭로하심으로 선민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신앙 오염에 대해 질타하고 예레미야 당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9) 너의 머리털을 베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머리털을 베는 행동은 극한 슬픔이나 수치에 직면했을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머리를 베어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머리털은 왕관처럼 사람을 영예롭게 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머리털을 자르는 것은 그 자부심과 자긍심, 영예를 실추시키고 모독한다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유다 백성은 본래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 헌신된 자들로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로,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로 그들이 본래 지닌 신분과 무관된 죄인의 삶을 살았음을 고발합니다. 벳은 산 위에서 통곡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벳은 산’은 나무나 풀이 없는 험벗은 민둥산을 가리키는데 그곳에는 주로 이방신을 위한 산당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벳은 산 위에서 통곡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 배신을 인하여 패망을 당할 것이며, 그 결과로 인해 절망에 빠진 유다 사람들의 형편을 생생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죄를 보시고 단순한 분노를 터뜨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인내의 한도를 넘어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끝나고 쌓아두었던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쏟아져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는 처참하고 참혹한 형편에 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33절). 율법에 의하면 아무리 극악한 죄를 범한 자도 매장을 시켜 줄 것을 요구

합니다(신21:23). 그러나 이스라엘은 매장은커녕 그들의 시체를
동물이 뜯어먹어도 쫓아줄 사람이 없을 만큼 비참한 형편에 놓
여질 것입니다.

(34) 그 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항평하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신랑과 신부의 소리는 일상에서 친숙
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유다 땅에 더 이상의 기
쁨도, 더 이상의 즐거움도 없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기뻐하
는 소리가 사라짐으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땅이 될 것을 함축
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토록 죄를 경계하고 악을 멀
리할 것을 가르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견딜 만하고
참을 만하며, 이겨낼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 가감 없는 책임
이 따를 것입니다. 그때 후회와 통곡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
쁘고 즐거운 소리를 발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며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는데 우리는 삶의
염려와 근심에 눌려 주님의 크심을 보지 못하고, 더 가지려 더 쌓아놓
으려 하나님의 높음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을
까 온갖 우상을 찾아 헤매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
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라는 모자이크를 채워갈 때에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는 은총
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2. 그때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그 당시 내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3. 주님께 나의 등과 얼굴을 돌렸던 때가 언제였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4. 사순절 다섯째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결단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5. 고난주간동안 더 깊은 묵상을 위해 주변을 정돈하며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공중의 학은 그시기를 알고

예레미야 8:1-22

1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 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2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못 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3 이 악한 민족의 남아 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 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4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5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려감은 어찌함이나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6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 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7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8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서기관이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9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와의 말을 버

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10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
 짓을 행함이라 11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거
 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12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엮드러질 자와 함께
 엮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3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14 우리가 어
 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
 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15 우리가 평강
 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뿐이로다
 16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
 을 삼켰도다 17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18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
 도다 19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
 고 하시니 20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
 지 못한다 하는도다 21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
 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22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 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이고

유다의 완고한 죄(1-12)

예레미야 7-10장은 유다 백성들의 오염된 신앙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7장에서는 성전지상주의 신앙, 즉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지켜 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여호와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속이 상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2절은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다시 지적하십니다.

(1)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 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후에 유다가 망하게 되었을 때 침략자들이 와서 무덤들을 파헤치고서는 유다 왕들의 유골과, 지도자들의 유골, 제사장들의 유골, 선지자의 유골, 일반 주민들의 유골을 꺼낼 것이라고

합니다. ‘뼈(유골)’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어떤 사람이 죽은 후에라도 생전에 지은 중범죄가 드러날 경우에,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서 시신을 베거나, 목을 잘라 거리에 내걸었습니다. 그것을 ‘부관참시(剖棺斬屍)’라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도굴꾼들이 한 재벌회장 부친의 묘를 파헤쳐 유골을 훔쳐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벌회장 부친의 무덤에는 틀림없이 고가의 귀금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없자, 유골을 가져가서 그것으로 돈을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발각 뒤집어졌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사자(死者)_죽은 사람에 대한 정서는 유대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 시체가 매장되지 못한 채 버려지는 것과 무덤이 파헤쳐지는 것은 큰 저주와 심한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한 만행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저질러질 것이라고 합니다.

(2-3)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못 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의 남아 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 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일반 백성에서 왕들과 선지자, 제사장의 무덤까지 파헤쳐지는 상황에도, 그동안 사랑하고 노예처럼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숭배했던 해와 달, 하늘의 별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파헤쳐진 유골들이 그저 땅바닥에 버려져 거름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아무런 일이 없었는가 하면, 그들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고, 차라리 죽고 싶다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처절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될 것이라 전했음에도 끝까지 버티는 유다 백성들을 고발합니다.

(4-5)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나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딛거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넘어진 상태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넘어져 무르팍이 까져서 몹시 아파도, 넘어진 것이 창피해서라도 벌떡 일어서서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혹 아이가 부모와 함께 가다가 넘어지면,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일으켜 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혼자서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벌떡

일어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을 죄로 넘어지고서도 일어설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기만 했지,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루살렘 백성들의 완고한 모습을 6, 7절에서 동물들에 비유해서 고발합니다.

(6)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 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백성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라고 자책하는 사람은 있어도 실제로 뉘우치는 사람도 없고, 자신의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이 마치 전쟁터로 돌진하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말이 전쟁터에서 적진으로 향하여 달리기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적의 말이 되든지, 죽음을 맞이하게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우상을 향하여 돌진하면, 그 결과는 우상의 자식이 되어서 우상숭배자가 되든지, 허망함에 빠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든지입니다.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7)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학은 높이가 1m가 넘고, 날개 길이가 2m도 넘는 큰 새인데, 주기적으로 아프리카 중부로 날아갔다가 팔레스타인의 호수나 이스라엘 평원으로 돌아와 서식하곤 했습니다. 산비둘기는 4월이 되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 철새였고, 제비는 겨울이 되면 떠났다가 3월이 되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두루미(학)도 동일하게 따뜻한 계절이 되면 돌아오는 철새였습니다. 이처럼 철새들도 정한 시기, 갈 때와 올 때를 알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8-9)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이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버렸는데 무슨 지혜가 있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나 우리 그리스인들이나 동일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은, 그 속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

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고 해도, 내 인생은 내가 더 잘 아니까, 내가 더 잘 꾸려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자기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높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0-12)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내용은 6:12-15절과 거의 흡사합니다. 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은 특정한 계층, 일부의 사람들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 제사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심각한 암과도 같아서 수술해야 하는데, 소독약을 부은 후에 빨간약 바르고, 그 위에 붕대로 감아주고서는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짓을 하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살핀 바와 같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무덤을 파헤쳐 유골을 꺼내는데, 왕들의 유골도, 지도자들의

유골도, 제사장의 유골도, 선자자의 유골도, 일반 주민들의 유골
까지 다 꺼내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죄를 범했기 때문
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비탄(13-22)

13-22는 심판을 선언 받은 유다 백성들의 공포와 절망,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했던 예레미야의 탄식과 엘레지(비가)입니다.

(13)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포도와 무화과는 팔레
스타인의 주된, 그리고 생계에 꼭 필요한 작물이었습니다. 그런
데 그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참화로 온 땅이 초
토화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다 잎사귀가 마른다고 하는 것은 가뭄과 기근도 함께 올 것입
니다. 설상가상, 앞친 데 뒷친 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14)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죽자)는 것은 죽더라도, 안전한 곳에서, 좀 더 살다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참 허망합니다. 그리고 그 지경이 된 것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 하였으므로”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비참한 파국으로 가게 되는 이유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대로 사는 것인지 압니다.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 중하며 사는 것인지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도 돌이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를 비추어 주는 거울입니다.

동족의 모습을 지켜보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심경을 토로합니다.

(18-19)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가슴이 저미는 것 같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합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이 ‘먼 땅(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것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온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임금으로 섬기지”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이 내립니다.

(20-22)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데도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 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추수 때도 지나고, 여름도 지났지만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일찍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2년만 지나면 돌아온다고 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위치한 길르앗은 유향 산지로 유명했습니다. 유향은 치료제로 쓰였습니다. 유향과 의사에 의해 환자가 치료를 받듯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공중의 학이나,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는 떠났다가도 돌아올 줄 아는데, 자기 동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먼 곳(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슬퍼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새보다 못하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새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아버지가 아니어도 돌보는 것

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십시오. 그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는 고난을 넘어 부활의 여명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공중의 학과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와 같은 철새들도 때가 되면 돌아 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니 하나님의 탄식을 듣습니다.

우리도 비극적인 상황에 떨어지고서야, 좀 더 일찍 돌이킬 걸, 빨리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우리의 오늘은 지금까지의 삶의 결과이듯이, 지금의 오늘들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가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일을 하나님께서 그려 가시는 삶의 화판에 모자이크 종이 한 장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종이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색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이라도 솔로몬의 영광을 꿈꾸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까마귀와 백합화를 기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공중의 학을 비롯하여 철새들은 돌아가야 할 때와 돌아가야 할 곳을 알고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2.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만 즐기고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3.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동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당신이 슬퍼하며 중보기도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4. 당신이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레미야 9:1-26

1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2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3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4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5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6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7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8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9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별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0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니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

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11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12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 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
 느냐 13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
 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
 하고 14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
 을 따랐음이라 15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썩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16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
 운데에 그들을 흠어 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
 느니라 17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히는 부녀를 불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리오
 되 18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19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
 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
 이보다 함이로다 20 부녀들이여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21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
 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22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와 그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
 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
 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2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
 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25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26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쩍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의 심정(1-2)

8장에 이어 오늘 본문 1-2절에 예레미야의 마음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새번역, 1-2)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 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 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누군가가 저 사막에다가 내가 실 나그네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내가 이 백성을 버리고 백성에게서 멀리 떠나, 그리로 가서 머물 수 있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참으로 이 백성은 모두 간음하는 자들이요, 배신자의 무리이다

계속되는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 심판이 불가피한 유다 백성. 이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의 애통한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당할 재앙을 생각하면 그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워 마냥 울고 싶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울어도 그

슬픔을 표현할 길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사막에 거할 곳이 있다면 차라리 그곳으로 떠나고 싶다 합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가 겹쳐져 있습니다. 더는 백성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과 이 백성이 죄로 인해 당하게 될 재앙 또한 보고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심정을 표현한 말입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심판받을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의 연민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애뜻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마음을 지닌 자들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연민을 마음에 담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 울고,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보이는 통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늘 살피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 자신 또 우리 이웃과 가족, 교회, 세상을 향해 눈물지으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내 안에 말라 있진 않은지, 또 그곳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사그라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유다 백성의 죄(3-9)

이제 3-9절에서 유다 백성의 죄가 구체적으로 언급되는데, 그 핵심내용은 ‘거짓을 말하는 것’과 ‘속이는 것’, 이 두 가지가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짓이 난무한지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할 때에도 마음으로는 해칠 생각을 품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4절에 보면,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그 공동체에는 거짓이 모두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순한 거짓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8절에 ‘허는 죽이는 화살’이라고 합니다. 언어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삶에 거짓과 허위가 난무했고, 그 거짓과 허위는 독이 묻은 화살처럼 서로를 해치는 살상 무기가 되어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짓과 속임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번역, 3) 내 백성이라는 것들은 활을 당기듯 혀를 놀려 거짓을 일삼는다. 진실은 없고, 그들의 폭력만이 이 땅에서 판을 친다. 참으로 그들은 악에 악을 더하려고 돌아다닐 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은 알지 못한다. 나 주의 말이다

(새번역, 6)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기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 나 주의 말이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아마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얕은 지식의 얕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얕을 의미하지 않습니

다.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왜곡된 관계를 맺어가면 즉 지식과 삶이 분리된 신앙을 고집하면, 우리의 삶은 왜곡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만 말과 삶이 다스려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 백성의 구체적인 죄들을 언급하시며 이들을 벌하시는 것이 불가피한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9)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이들을 벌하시거나 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7)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은 연단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연단의 목적은 순수성을 만들어 내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순수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징계라는 수단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빗어 가시는데, 이 연단의 목적을 잊지 않을 때, 주어진 삶을 낙심없이 정확히 보고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10-22)

이제 10절부터 범죄 한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 때의 모습이 10-11절에 그려져 있습니다.

(10-11)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 불에 타고 짐승 조차 살지 않는 폐허가 되게 할 것을 하나님은 예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심판 때의 모습이 15-16절에 그려져 있습니다.

(15-16)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썩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 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유다가 멸망당해 곳곳으로 흩어져 고통을 겪게 될 것이며,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은 예고하셨습니다. 작은 죄라도 전혀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심판 때의 모습이 곡하는

부녀의 모습을 통해 그려져 있습니다.

(새번역, 20-22) 여인들이,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여라. 딸들에게 애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너희도 장송곡 부르는 법을 서로 익혀라. 죽음이 우리의 창문을 넘어서 들어왔고, 우리의 왕궁에까지 들어왔으며, 거리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사정없이 죽어 가고, 장터에서는 젊은이들이 죽어 간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이렇게 전하여라. 사람의 시체가 들판에 거름 더미처럼 널려 있다. 거두어 가지 않은 곡식단이 들에 그대로 널려 있듯이, 시체가 널려 있다

19절에 보면,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거룩한 장소, 바로 시온에 죽음이 들어와 왕궁, 거리, 장터에서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하여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랑(23-26)

죄에 대해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은 이제 유다백성이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의 지혜, 힘과 부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공휼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 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까마귀도 길러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아끼시고 세밀히 돌보시는지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지혜이시고, 부가 되심을 말과 삶으로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결단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자랑삼고, 세밀히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아울러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과 가족, 또 교회를 돌아보시는 하루이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내 안에 말라가는 세상을 향한 주님의 눈물,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인간의 힘과 지혜, 부를 의지하던 우리의 죄된 먼지를 떼어내고, 또 세상의 죄된 먼지를 털어내는 통로로 늘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나의 힘, 자랑삼아 주님의 돌보심을 늘 세밀히 경험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예레미야의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2. 유다 백성의 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어떠합니까?
4.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23-24절에서 유다 백성에게 무엇을 결단하게 하십니까? 나는 현재 무엇을 자랑삼고 있습니까?

야곱의 유산이신 주님

예레미야 10:1-25

1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나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3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4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5 그것이 등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나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6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7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8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9 다 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식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나와 10 오직 여호와와 참 하나님이지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11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

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12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13 그가 목소리를 내시즉 하늘에 많은 물
 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
 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14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
 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15 그것
 들은 헛 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16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17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네 집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18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
 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19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20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21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 떼는 흩어졌도다 22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
 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23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24 여호
 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25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짊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
 나라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1-11)

이스라엘은 처음 시작부터 존재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과는 구분되는 야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욱 이스라엘 다울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신앙적 독특함을 유지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 나라들의 풍습을 따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나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의 ‘두려워하다’는 말의 의미는 마음이 부서져 버릴 정도의 공포로 인해 마음은 물론 몸까지 떨리며 엎드려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 별을 보며 각종 신비로운 징조를 이야기하는 이방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에게 마음이 현혹된 이스라엘은 이유 없는 공포감을 느끼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인간은 그 우매함으로 인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는 우상들의 실체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5)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여, 신비롭게 보이는 돌과 나무 등에 미혹되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날이 복됨을 깨닫지 못하고 손이 있고 없고에 따라 이사 낱자를 정해야 하고 심지어 이사하는 방향까지 제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 삶은 귀신에 매인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도끼에 베어진 나무, 불에 가공된 금속일 뿐인 우상에 엮드리는 것은 실로 우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겨난 인간 상상의 왜곡된 개념이며, 신앙이라는 이름을 덮어쓴 기만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 존재의 근거요 완성자로서 홀로 충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부인이요 왜곡이기에 우상숭배는 죄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초월적인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아닌 비열하고 적대적인 다른 것이 우리 주인의 자리를 차지함으로 굴복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참혹한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공동체로서의 존재근거로부터 이탈하고 분리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살펴볼 때 우상숭배와 함께 멸망의 길로 걸어갔

음이 이를 증거합니다. 예레미야는 무능하고 무가치한 우상과는 달리 하나님을 6절에 ‘크시다’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의 왕으로 계시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크심을 알게 될 때 예레미야는 물론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10)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만물과 만군의 하나님(12-16)

12절부터 16절에서는 아람어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우상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온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2-13)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공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감히 인간의 말로 풀어 낼 수 없습니다.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몇 마디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 세우신 세계

와 그 피조물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속적인 권능을 인간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만으로 모든 자연계가 운행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씀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가 만든 우상과 함께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14)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우리는 모두 간절한 필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슴은 제 갈 길로 가지만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을 찾듯이,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이들은 이 시간 편안히 잠이 들 수 있지만,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단잠을 포기하며 이 기도의 시간을 깨우고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것을 가져가지만, 우리의 목마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표준새번역, 16) 그러나 야곱의 유산이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시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인 지파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다.

두려움 속의 기도(17-25)

그렇다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영적인 목마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 회복도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새번역, 17-18) 포위된 성읍에 사는 자들아, 이제 이 땅을 떠날 터이니 짐을 꾸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백성들만 곳으로 내던지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도록, 내가 직접 그들에게 고통을 주겠다" 하셨기 때문이다

현재 예루살렘의 상황은 이미 바벨론 군대의 포위 중에 함락되었거나 적어도 함락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급박한 위기이며, 예정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19절부터 나라의 위기 속에 선지자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19)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예레미야가 노래하는 고백 속의 ‘나’는 선지자 자신이면서 또한 의인화된 예루살렘 성이기도 합니다. 선지자 자신과 예루살렘 성을 동일시하면서 고백하기를 이 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고통스럽지만 공의로우므로, 나와 우리의 죄악을 가슴으로 깨달으며 주어진 고통을 감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

국 죄를 지은 유다를 황폐하게 할 큰 무리의 대적이 북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24-25)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다 인간의 마음에 납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정의를 하나의 사건 속에서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징계가 끝이 아님을 알며 고통 속에서도 유한한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부활을 허락하십니다. 순종하는 그 적은 무리를 통하여 영원에 잇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이며, 우리 인간이 가야만 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의 주님, 온통 허물과 죄뿐인 인생입니다. 오물을 뒤집어 쓴 우리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세상을 뒹구는 짐승과도 같은 삶입니다. 이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대신 저주신 십자가가 참 감사한 날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심을 알기에 오늘 우리도 부활의 생명,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그 열매를 맛보아 함께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이스라엘이 특별한 신앙공동체가 되듯 나의 신앙은 어떤 특별함을 지니고 있는지 묵상해봅시다.
2.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나는 무엇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3. 내가 두려워하는 실체와 우리 하나님을 비교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4. 하나님을 나의 언어와 신앙으로 정의해보며 그 하나님께 생명을 주신것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올려봅시다.

쇠풀무 애굽 땅에서

예레미야 11:1-23

1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2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3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4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5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6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7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8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9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10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11 그러므로 나 여호와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12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13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14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15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때에 네가 기뻐하겠느냐 16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17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18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 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19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피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 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20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21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22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23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에니라

유다의 언약 준수 권고(1-8)

선지서 예레미야는 시간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말씀이 선포된 순서대로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어떤 부분이든지 그 내용이 유다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불순종, 언약의 파기, 윤리적 타락 등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전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예레미야 7-10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자행했던 우상숭배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다면, 11-13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려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아왕의 통치 후반기인 BC 610년 전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선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2) 여호와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오늘 본문과 같이 7장에서도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에서도 동일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예레미야로부터 나오지 않고,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듣고서 말하지 않으면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고, 듣지 않고서 말하면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듣고 말하는 것이어야 참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보다 앞서면 하나님이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4)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물론 그들의 조상 때부터 요구하셨던 것은 언제나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고 하셨습니다.

최고 권력자와 조금만 관계가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신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배경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는 이 명령은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처음으로 주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 주어졌던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출애굽 시대 때부터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보다 약 800년 전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인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언약의 말을 듣다’에서 ‘듣다’와 3절에서 ‘언약의 말을 따르다’에서 ‘따르다’, 4절에서 ‘내 목소리를 순종하다’에서 ‘순종하다’가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던지,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여러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라하고 하셨습니다.

(7-8)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시점이 바로 출애굽을 했을 때부터, 더 정확하게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던 그 순간부터라고 합니다. 7절에 있는 부사 ‘간절히’, ‘끊임없이’와 같은 단어는 인간이 하나님께 쓰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자기 백성들을 위하시고, 편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은 ‘완악한 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불순종을 하니까, 불순종이 개개인들에게는 습관이 되었고, 유다 백성들 전체에게는 관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잘 알고 있음에도 우리 속에 있는 완악함과 고집이 순종하며 사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언약 배반(9-17)

9-17절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토록 언약(말씀)을 지키길 것을 호소하셨지만, 여전히 우상숭배로 언약과는 상관없이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행했던 일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10)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우상숭배를 했다는 면에서는 망한 북이스라엘이나 망해가고 있는 남유다나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때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인간의 궁극적이고도 본질적인 죄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개인마다, 상황마다 약간씩 다르다고 할지라도 죄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하나님 대용품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재물, 권력, 쾌락 등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우상숭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13)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유다가 얼마나 많은 신을 섬겼던지, 그 숫자가 유다에 있는 성읍 수만쯤이나 많고, 바알에게 분향하기 위해서 세운 제단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리의 숫자만큼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상이 그들을 건져주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또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만큼 많은 신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불안하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전운이 감돌면 사람들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전운이 뚜렷해지면 질수록 비상식량을 비롯해서 필요한 것을 최대한 확보해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필요한 것만 사면됩니다.

십계명 중 제일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만 유일하시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책임져주시는 분이시기에 한 분만 섬기는 것으로도 신앙은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만약 우상숭배하는 것이 집 앞에 있는 구멍가게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와 신세계, 현대, 롯데 백화점들을 전부 합한 것보다도 같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큰 시장이 같은 시장이 집 옆에 있으면,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가게, 저 가게를 기웃거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속이 상하신다는 표현입니다. 7장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의 이면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형편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15절에서 유다백성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면서도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찢어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나돏의 음모(18-23)

18-23절은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아나돏 사람들의 음모와 예레미야의 하소연과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신실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신실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과 그의 고향-아나돏-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습니다.

(19)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피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 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힘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단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나, 협박이나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혼내주는 정도로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를 죽여서 그의 가문에 씨를 말려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죽일 모의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그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자 너무 흥측하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 거울이 틀렸다고 말하며, 그 거울을 깨려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22-23)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요 4:44)”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형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고향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임을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눈여겨보고,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 있는 ‘쇠풀무’라는 단어입니다.

4절에서 ‘쇠풀무’라는 단어를 빼고,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쇠풀무’라고 하는 한 단어를 더 넣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한 것을 ‘쇠풀무(용광로)’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쇠풀무’는 새로운 쇠를 만들어 내는 곳입니다. 쇠는 풀무에 들어가기 전에도 쇠이고, 나와도 쇠입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쇠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살이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몰라서 이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적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는 본래 ‘영원한 죽음의 풀무’ 속에 있어야 했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영원한 생명짜개’로 싸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쇠풀무와 같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풀무 속에 있는 것은 참 뜨겁습니다. 온 인생이 다 뒤틀리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

풀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함께 지어가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 풀무는 ‘고통의 그릇’이 아니라 ‘은혜의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로 영원히 잇대어진 삶을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쇠풀무에서 부활하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다함의 없는 보물, 낱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끊임없는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속을 상하게 만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공중 나는 까마귀도 키우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더 좋아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보다 솔로몬의 영광으로 대변되는 세속적 가치관을 더 많이 의식함으로 교묘하게 우상숭배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쇠फल처럼 보이는 것들로 인해 고난과 고통과 고달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죽음의 쇠फल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겸허하게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는 세속적 가치관에 정신이 팔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나라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당신의 인생에서 '쇠꿀무'라고 여겨지는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그 때를 통과하면서 얻은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2.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우상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속상해 하셨습니다. 당신의 지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속상하게 했던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3.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향사람들에게도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4. 목전(目前)의 이득을 위하여 우상숭배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예레미야 12:1-27

1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2 주께서 그들을 심으시므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3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4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5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6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7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8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 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 이로라 9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

게 하라 10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11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12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와 같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13 무리가 밭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14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 내리라 15 내가 그들을 뽑아 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16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 있는 여호와와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비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17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께서 세운” 선지자입니다. 1장에서 살펴본듯이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에 있기 전부터 아셨고, 태아로 있을 때 이미 구별하여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못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전

한”(렘1:17)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두려워했습니다니까? 아닙니다.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멸시하고 핍박했습니다. 게다가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한다면, 너는 물론 일족까지도 멸하겠다”(렘 11:21)고 공공연하게 헐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좌절(1-4)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렘 1:18-19) 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고향 사람들의 살해위협 속에 살아가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두려움에 깊은 좌절의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그가 얼마나 좌절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그는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고있는 현실에는 하나님의 공의는 온데간데없습니다. 오히려

려 정반대로 악의 세력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악이 선을 짓밟고 우뚝 서서, 하나님의 의를 비웃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의하면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위선자들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현실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세월호가 침몰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면 자식과의 이별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분개는 수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년이 지났음에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 역시 예레미야와 같은 항의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우리 아이들을 차디찬 바다에서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왜 아직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불의한 이들을 처벌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3B)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그는 하나님께 두 번째 항의를 합니다.

(4A)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언제까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땅은 물론 짐승과 새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왜 악인인 그들로 인해 아무런 죄가 없는 의인과 자연과 짐승들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오늘날, 사람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었고 많은 짐승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거주하던 숙소는 바로 해변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매일 교회까지 해안길을 따라 걸어서 출퇴근을 하면서 해양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의 해안은 온통 플라스틱 쓰레기로 덮여있었습니다. 특히 커다란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면서, 바닷속과 해수면을 떠다니며 해양환경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세 먼지가 인체에 해롭듯이, 미세 플라스틱도 인체에 해로운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과 동식물들이 이기적인 인간들로 말미암아 훼손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는 고통에 관한 두 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첫 번째 책인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다면 왜 피조물들이 고통당

하도록 허락하시는가?”라는 보편적인 문제에 대해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신학적으로 접근한 책으로 정평이나 있습니다. 그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고통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년 후에 고통에 관한 두 번째 책 “헤아려 본 슬픔”을 집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책을 루이스의 심장을 담은 슬픔의 일기라고 부르곤 합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59세에 결혼했던 루이스가 결혼 3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 조이 그래섬을 암으로 떠나보낸 후, 그 슬픔을 진솔하게 적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그의 어조는 매우 격앙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도 전능하신 분도 아니며, 가학적인 신이고, 음식을 주고 다시 빼앗아 가는 광대, 멍청한 바보, 심지어는 나쁜 신으로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5-6)

예레미야의 항의에 대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 (5)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예레미야의 항의에 대해 하나님은 그의 노고에 대해 수고한다고 하거나, 실의에 빠져있는 그를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것으로, 평안한 땅에 있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말과 경주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가 처할 어려움이 지금보다 훨씬 크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닥칠 어려움은 마치 우기에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흐르는 범람하는 요단 강물과도 같다고 하십니다. “지금 고향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위협한다고 벌써 코가 석자나 빠졌느냐, 앞으로 네 형제나 아버지 집이 너를 속이며 너를 죽이라고 소리 지를 것인데 벌써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면서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 각오를 새롭게 다지게 하셨습니다.

군대에서 일반사병과 장교의 훈련 강도는 다릅니다. 장교는 사병을 인솔해야 하기에 장교의 훈련 강도는 사병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사병이 아닌, 장교로, 장군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예언자들과 대결한 엘리야는 3년 만에 내리는 장대비를 맞으면서도 말이 끌고 달리는 왕이 탄 마차보다 더 빨리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은 갈라졌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복했습니다.

새롭게 각오를 다진 예레미야는 이후 40년 동안 말과 경주

하는 삶을 살면서도 결코 지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는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지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침입으로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같은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장군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완수했습니다.

사랑의 분노(7-13)

예레미야에게 각오를 새롭게 다짐시키신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에 닥칠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숲속의 사자와 같이 맹렬하게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 넘기고,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하실 정도로 분노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도 크셨겠지만, 제자들의 배신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것만큼 큰 고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당한 배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11절에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분노는 미움의 분노가 아니라, 사랑의 분노입니다. 미움의 분노는 상대방을 파멸

시키지만, 사랑의 분노를 상대방을 다시 세워줍니다.

다시 세워주심(14-17)

자신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고, 그들 손에서 유다(이스라엘)를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14B-15)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다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 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이 아니라면 오늘의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16)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 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본문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항의했던 형통한 악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신봉했던 그들이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삶을 산다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분통해했던 형통한 악인을 하나님께서 묵과하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고 참 생명의 빛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정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17)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시점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심판하여 멸하시겠다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느냐면서 항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내 뜻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사랑하는 아내와의 사별로 인해 낙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루이스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나 사랑의 자질을 알아보시려고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다.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모르는 쪽은 오히려 나였다. 이 시험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피고석과 증인석 그리고 재판석에 모두 한꺼번에 앉아 볼 수 있도록 만드신다. 그분은 언제나 나의 성체가 카드로 만든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내가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뿐이었다.”

루이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자신의 우매함을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사도들의 시대, 오늘날, 그리고 미래에도 악인의 형통함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함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후손에게 자랑이 아니라 치욕입니다. 세상적 관점의 형통함과는 거리가 먼 진리의 삶을 살았던 예레미야, 예수님, 사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시간은 경험했던 시간보다 더 힘든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팽창해가는 맘몬주의, 무너진 성도덕, 환락문화, 이기주의, 분파주의, 세대와 계층간의 차별과 갈등 등 주님께서서는 좀 더 쉽고 편안한 삶의 자리에 안주하려는 우리에게 각오를 새롭게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나의 관

단을 내려놓고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사병처럼 살지 말고 장군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십니다. 겐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으로 미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모든 공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일상이 영원에 잇대어지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져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참으로 좁았고 조급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내면 깊숙이에서는 그들의 삶을 부러워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의 판단을 더 믿고 우리의 판단으로 이웃을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되었음에도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미워하며 밀어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뜻과 판단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장군으로 살아갈 것을 새롭게 결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가는 매일이 영원에 잇대어지는 아름다운 나날들로 축적되는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악인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3. 악인의 형통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일까요?
4. 하나님이 침묵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5.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결단했는지 적어봅시다.

멸하리라

예레미야 13:1-27

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베 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2 내가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3 여호와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4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띠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5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6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7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8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9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10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11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2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에 모든 가족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가족부대가 포도주로 잘 줄
 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13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
 고 14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붙잡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
 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5 너희는 들
 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
 음이라 16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칙칙한 어둠이 되게 하시
 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17 너희가 이를 듣지 아
 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와 양 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18 너
 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
 이 내려졌다 하라 19 네 껌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 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20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
 을 보라 네게 맡겼던 양 떼, 네 아름다운 양 떼는 어디 있느냐 21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
 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22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23 구스
 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
 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24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러가는 검불 같이 흩으리도다 25 여호와와 말씀이
 니라 이는 네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26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춰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27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과 결과를 강조하는 예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멀하리라(1-14)

1-14절 말씀은 교만과 악에 물든 이스라엘을 향한 두 가지 간접적인 심판, 썩은 베 띠를 통한 심판과 포도주 가죽 부대 비유를 통한 심판 예언입니다.

(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베 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베 띠를 사서 착용하되 물에 적시지 말라는 주의 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베 띠는 세마포로 만든 것으로 제사장이 예봇 위에 두르는 허리띠와 같은 띠로 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복장의 하나인 띠를 착용하라는 명령은 예레미야의 실제 행동을 통해서 유다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제사장 나라로 선택되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베 띠를 사서 허리에 띠게 하심으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유다의 독특한 지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줌으로 백성들이 영적 경각심을 갖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그런데 베 띠를 띠되 ‘물에 적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염된 세상의 죄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경계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4)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띠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6)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1절과 2절, 3절에서 5절, 그리고 6절과 7절을 통해 베 띠를 감추게 하신 후 다시 찾아오게 하시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명령을 내리셔도 될 듯한 내용을 이렇게 시차를 두고 세밀하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예레미야의 순종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범죄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예레미야가 머물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는

1천에서 1천2백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어찌 먼 무의미한 듯이 보이는 일을 위해 두 번이나 왕복하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예레미야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스라엘을 향해 경종을 울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고 교만하였는지를 9-10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9-10)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써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때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보여 왔던 교만에 대한 응분의 심판으로 물가에 두었던 베 띠와 같이 그들을 썩어 쓸모없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백성이 썩은 베 띠와 같이 쓸모없는 민족이 되어버린 이유를 세 가지로 지적하고 계시는데 첫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둘째,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했습니다. 셋째, 다른 신들의 뒤를 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다가 우상을 좇아가는 망령된 자들로 변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고발하고 계십니다. 결국 썩은 베 띠를 통한 심판의 원인이 바로 유다의 타락에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번역, 12-14)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향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향아리에 포도주가 담긴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느냐?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술에 잔뜩 취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부딪쳐서 깨지게 하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부딪쳐서 깨지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며 동정도 하지 않으며 사정없이 멸망시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12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랑과 관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해 포도주 가죽 부대의 비유로 심판을 예언하시며 심판의 결과 그들이 멸절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죽부대는 유대를 상징하며,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가깝게 지내며 서로 도와야 할 형제에게 위해를 가하게 하심으로, 또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서로를 해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유다 사회에 인륜이 완전히 무너지며 골육상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유대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데 조금도 동정심을 갖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계십니다. 죄는 이웃을 갈라놓고, 형제를 갈라놓으며,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는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지 않음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백성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말씀이 지식으로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무엇인가 갈라진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비추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경홀히 여겨지고 있는지 내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지어다(15-27)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교만과 악에 물든 유다를 향하여 세 가지 직접적 경고와 심판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17절 말씀은 유다의 교만을 금하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15)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유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결코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교만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기 시작할 때 죄의 시발점이 됩니

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자신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리는 교만으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유다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16절). 유다에 암울한 시대가 임하기 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교만한 유다 백성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족 유다의 교만으로 인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7)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 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푸른 초장과 설만한 물가에 머무는 양 떼처럼 영과 육이 평안을 누리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짐승과 같은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혀 가는 참상을 보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설움에 북받쳐 울었음을 의미합니다. 동족의 참상과 더불어 여호와의 선민이 선민으로의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이방의 수치가 되는 것에 대한 영적 슬픔이 예레미야를 사로잡았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양 떼가 당하는 암울한 상황을 바라보며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교만과 죄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의 수치를 만천하에 공개하시며 유다가 행한 음란과 우상숭배에 대한 죄를

물으셨습니다. 선천적으로 변하지 않은 것 두 가지, 구스인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꾸지 못하는 것과 표범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하시면서 절대적 불가능을 역설적 의미로 표현하여 후천적인 것이지만 죄가 몸에 찌들어 결코 선을 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유다의 패역을 지적하셨습니다(23절).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기억해야 하고, 신뢰해야 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거짓을 신뢰하며 교만과 음란과 사악함,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7)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비록 오랜 시간 동안 유다가 그들의 죄로 인해 큰 시련을 겪었지만 궁극적으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란 사실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찌든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궁극적 목적이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재앙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들을 정결케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27절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 이방을 통해 죄의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죄는 어느 순간 우리를 교만의 자리에 서게 하며, 죄는 어느 순간 우리를 음란의 길을 걷게 합니다. 또한 죄는 어느 순간 우리를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만 관심을 갖게 합니다. 죄의 길로 향하던 우리를 위해 고난을 친히 감당하시고 구원의 길로 다시 안내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은총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죄의 길에 서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거짓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게 하시며,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의 뜻이라고 우기며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유다의 구원을 위해 예레미야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 나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와 같이 순종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2. 이 민족을 위한 나의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3.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드러내신 사건이 있으십니까?
4.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드러내실 때의 심정은 어떠했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5.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나의 가진 것을 하늘에 쌓는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예레미야 14:1-22

1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와 말씀이라 2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3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4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5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6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7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이다 8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9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10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11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12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13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 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14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15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16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17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과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18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19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20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21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22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첫 번째 탄식-가뭄 재앙 예언(1-9)

예레미야 14-15장은 예레미야의 탄식의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역사적인 배경은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18번째 왕인 여호야김 시대, BC 600년경에 이루어진 일로 보고 있습니다.

1-9절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첫 번째 탄식 기도로, 극심한 가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살아가다 보면 장마로 홍수를 경험할 때도 있고, 가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비가 적게 왔기 때문도 아니었고, 일반적인 가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비로 홍수가 자주 나서 농사를 망친다면, 관개시설(灌漑施設)을 잘 정비하고 확충하면 농작물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

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역사상 가장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가뭄이 오래 지속되면, 사실상 하늘을 쳐다보는 것 외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독한 가뭄으로 연못과 강바닥이 마르고, 갈라진 논바닥을 보노라면, 농부의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질 것입니다. 하물며 2600년 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가뭄이 얼마나 극심하였던지, ‘가뭄’을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가뭄이 여러 해 계속될 뿐만 아니라 극심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겪을 고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2-4)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가뭄으로 고통을 겪게 될 사람들을 세 부류로 말씀합니다. ‘유다’와 ‘성문의 무리’, ‘예루살렘’입니다. ‘유다’는 유다 왕국 전역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가뭄이 깊어지면, 가장 먼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입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깊이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문의 무리’는 도시 사람들을 뜻합니다. 과거에 ‘한양’이라고 하면, 4대문과 4소문 안쪽을 의

미하는 말이었던 것처럼, 고대에도 성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문 밖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운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가뭄의 고통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유다왕국의 수도입니다. 유다 전체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복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도 극심한 가뭄에서는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뭄의 때에 귀인들(귀족들, 부자들)이 하인들을 보내어서 물을 구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3절의 동사, ‘보내었다’, ‘갔다’, ‘얻지 못했다’, ‘돌아왔다’가 나란히 사용되었습니다. 상황이 다급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물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죄악을 지적하며,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2:13)”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물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5-6)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데도다

사슴과 나귀와 같은 짐승들은 자기 새끼를 지키려는 본능이 강합니다. 그런데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가뭄으로 풀이 자라지 않아서, 풀을 먹이려고 해도 풀이 없어서 버린다고 합니다. 야생나귀들도 민동산에서 여우(자칼)처럼 숨만 헐떡이는 것은 먹을 풀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가뭄으로 고통을 겪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출발은 우상숭배였습니다. 구약시대에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입니다. 바알은 페니키아의 시돈에서 왔는데, 다산과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바알은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이라, 곡식, 과일, 가축 등의 성장과 결실을 주관한다고 믿고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이 그토록 열심히 바알을 섬겼음에도 결실과 풍요는 고사하고 남은 것이라고는 메마른 땅밖에 없었습니다. 바알이 결코 다산과 풍요를 가져올 수 없음을 가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뭄의 원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7)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유대 백성들의 바르지 못한 삶을 세 가지로, ‘죄악’, ‘타락함’, ‘범죄’라고 고백합니다. ‘죄악’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것입니다. ‘타락함’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는 과녁(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뜻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뭄의 원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의 삶이 형편없지만, 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거짓 예언(10-16)

10-16절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곡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징벌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12)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 서만 3번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셔도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유다 백성들이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실 것이고, 헌신의 제사인 번제와 봉사의 제사인 소제를 드려도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칼, 기근, 전염병으

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쇠의 곁에 녹이 슬면 사포로 닦아내면 됩니다. 그러나 깊숙이, 중심부까지 녹이 슬면 사포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정도가 쇠로 하면 곁에 녹이 슬 정도가 아니라 깊숙한 곳까지 녹이 슬고, 그 녹으로 인해 부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포로 문지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용광로’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지나야 하는 것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것이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칼, 기근, 전염병으로 징계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명령을 내리시는 때에는 꼭 거짓 선지자들이 날뛵니다. 그들은 칼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기근도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참 선지자인 것처럼 날뛴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선지자’가 되지만, 하나님께 받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면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소위 ‘자칭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고’, ‘명령하지 아니하셨고’, ‘이르시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내(하나님) 이름’을 자주 들먹거린다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인척하듯이, 자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주의 종’ 이런 말을 자주합니다. 지금도 이런 말들을 자주 쓰면,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 탄식-하나님의 눈물(17-22)

17-22절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 번째 탄식 기도로 눈물을 머금게 할 비참한 상황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7-18)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과 유다

가 어떻게 될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해서 속이 상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복을 구하지 말라 하시며, 칼과 기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마음은 더 찢어지셨던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패전하면, 전장에 나간 남자들은 죽지만, 여자들은 노예로 끌려가서 정말 비참한, 죽은 것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딸을 가진 부모의 큰 소망은 딸이 좋은 신랑감을 만나 결혼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 딸이 수욕과 수치를 당해야 한다면 부모는 눈을 뜨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과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칼에 맞아 죽거나 굶어서 병들어 죽게 될 것을 보시니 몹시도 고통스러우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이렇게 호소합니다.

(21)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건져주실 것을 3가지를 근거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과 같으니, 사랑하셔서 구원해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위하여 입니

다. ‘보좌’는 ‘성전’을 뜻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인 성전을 훼파하는 것은, 하나님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언약을 기억해 주셔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하시고,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 주시겠다고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폐하지 마시고 이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으로 막이 내립니다.

(22)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첫째, 이방인 우상 중에는 비를 내리게 하는 존재가 없다고 합니다. 폭풍우를 주관한다고 하는 바알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도 스스로 비를 내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일월성신을 섬겼지만 다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직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거부하고,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았더라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를 받은 사람답게, 유한한 이 땅을 살면서도 영원에 잇대어진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가 유한한 이 땅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의 나라를 주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영원한 가치관을 갖고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질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가뭄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금식과 번제와 소제를 드릴 지라도 받지 않는다고 말하심으로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도 그들의 마음이 회개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사탕 발린 거짓 예언에 눈멀었고, 하나님을 등지고 견뎌 가는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걷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보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이 생명이 없는 사람과는 다른 가치관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바른 삶의 길을 걷기 원하시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함께 지어져 가며, 주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연현상이나 일상의 일을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받으셨습니까?
2. 어떤 시대, 어느 곳이나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당신은 거짓 선지자나 거짓 말씀에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까? 그 때 어떤 교훈을 받으셨습니까?
3.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시고,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 이후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4. 기근과 같은 극심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짓 선지자의 사탕 발린 말에 현혹되지 아니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 15:1-21

1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2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 됴므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3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4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흠으리라
5 예루살렘아 너를 붙잡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라
7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블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8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머니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9 일곱을 낳은 여인

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
 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
 에 붙이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0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
 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
 다 내가 꾸어 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마는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1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12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
 을 꺾으리요 13 그러나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네 국경 안의 모든 재산
 과 보물로 값 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14 네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15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
 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16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
 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17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
 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
 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18 나의 고통이 계속
 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
 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19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
 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20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
 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하

여 건짐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21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단호하신 여호와(1-2)

예레미야 14-15장은 예레미야의 탄식의 기도와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단호한 답변으로 시작합니다.

(1)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선지자) 모세, 민족의 중보자 사무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 손꼽히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과거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고(출32:11-14), 사무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삼상7:9).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모세와 사무엘이 동시에 나와 기도한다 할지라도 뜻을 돌이키실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그들을 쫓아낼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 됴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백성들의 반응을 예단하시며, 그에 대한 대답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는커녕 도리어 예레미야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따져 묻는다면, 어디로 가든 저마다 그에 합당한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할 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이어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원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3절부터 9절에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 심판 내용과 그 원인(3-9)

(3)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9)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의 내용과 원인에 대한 진술을 시작하는 3절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의 내용과 원인에 대한 진술을 마무리하는 9절은 마지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문단의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그 중심에 위치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중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칼에 맞아 죽고, 개에게 찢어 먹히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 의해 그 시체마저 온전치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어떤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될 참혹한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또 여인들에게 임할 재앙을 소재로 심판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8)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머니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유대에 과부가 많아질 것을 ‘바다 모래’에 비유하여 선포하십니다. 이는 과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대한 자연스런 회상을 야기합니다.

(창 22: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실 약속을 주시면서 사용하신 비유가 ‘바닷가의 모래’였습니다. 이에 ‘바닷가의 모래’는 희망과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였습니다. 그러나 본 절에서는 그 비유의 표현을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여인들이 바다 모래와 같이 많아
진다는 것은, 앞서 주신 의미를 덮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다 모
래’는 이제 정말과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4)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흘으리라

아버지 히스기야의 선한 행실과는 달리 유다 제14대 왕,
므낫세(BC 697-642)는 악정을 행하였고, 자신의 아들까지 우
상의 희생 제물로 바치는 등 우상숭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므
낫세로부터 시작된 악행은 서서히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졌고, 성
경은 이것이 이방의 악행보다 더 심했다는 치욕적인 평가를 내
립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입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보이실 반응은 분명했습니다.

(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라

하나님이 스스로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백성
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이 ‘지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

다. 끔찍한 심판을 야기하는 이가 누구인지, 누가 누구를 버린 것인지를 통해 분명한 심판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차 마주하게 될 비극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닌,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없이 반복되는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악행에 지칠 대로 지쳐 계셨습니다. 10절부터 18절은 예레미야의 탄원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 집니다.

선지자의 탄원과 여호와의 말씀: 약속(10-21)

(15)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위에서부터는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내려오고, 아래서부터는 핍박과 위협이 올라오는 그 간극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위치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통스런 상황과 환경을 여호와께서 아시니, 바로 알아달라고 호소합니다. 반복해 사용된 ‘알다’의 원어적 의미(‘알아다흐’)는 단순히 지적인 앎을 넘어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아는 것과 같이 체험적,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누구보다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는 것과 참된 도움의 손길도 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2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개역개정에서는 생략되었으나 원문에는 ‘그러므로’를 의미하는 ‘גַּם־כֵּן’으로 문장이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이후 이어질 내용이 이전 내용의 결론과 같은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라는 문장이 여기에 반복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전자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의 의지를 담은 말씀이었다면, 후자는 잠시나마 흔들렸던 선지자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누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3절과 9절에 반복해 사용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문장이 여기에도 반복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앞서는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들을 말씀하셨다면, 본 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할 선지자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의 첫 장과 마지막 장에는 상반된 하나님의 선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쫓아 내보내라’, ‘구원하리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과연 어떤 선포를 하고 계신지 생각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떠남에 그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썩어질 배낭을 만드느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조차 흘려들으며, 혼탁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남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전도자로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시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그 적은 무리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필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이른 새벽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노라 소망하고 결단했음에도 그제, 어제 이어진 오늘의 저희 모습은 돌아보기조차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약속)에만 귀를 기울겠노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세상에서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만 보물을 쌓는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늘에 잇대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주안에서 함께 지어저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일상생활 가운데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2. 하나님과 백성들을 향한 본문 속 예레미야의 심정을 묵상해 봅시다.
3. 개인 신앙에 있어 하나님의 복으로 상징되는 키워드는 무엇인지 헤아려 봅시다.
4.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힘입어 주안에서 누구와 함께 지어져 가고 싶은지 생각해 봅시다.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예레미야 16:1-21

1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3 이 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
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4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 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5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
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6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
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7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8 너는 잔칫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9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 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10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나 하거든 11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12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3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14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15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 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리라 16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17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18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19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20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2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 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메시지에는 멸망과 회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멸망과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구원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즉, 구원은 더 이상 혈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할 때, 즉 믿음의 방향성을 바로 세울 때, 받게 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삶으로 전하는 심판예고(1-9)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금합니다. 이 금지 명령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에 대해 예고합니다. 사실 이 금지 명령들은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미리 보여줌으로써 유다 백성에게 경고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금지 명령은 명령과 그에 대한 해석을 함께 전달합니다. 그 중 첫 번째 명령입니다.

(2)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사람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이루는 것을 시작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결국 한 가정을

넘어, 나라를 지키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준행한다는 목적과 더불어, 결혼하고 자손을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라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더 열심히 준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것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독신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메시지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3-4) 이 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 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곳,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은 독한 병에 걸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칼과 기근, 즉 전쟁과 굶주림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죽음을 함께 슬퍼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을 묻어줄 사람조차 존재하지 않아, 썩어 땅의 거름과 같이 되고, 짐승들의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결혼하지 않아 자손이 끊어지게 된 예레미야와 같이, 유다는 그 종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첫 번째 금지명령에 이어, 두 번째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5-7)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결혼식은 못 가도 장례식은 꼭 가야 한다’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모든 문화권에서 장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초상집에 들어가서 통곡하거나 조의를 표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서 평강을 빼앗고 인자와 사랑을 거두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다에게 더 이상의 어떤 위로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유다의 상황은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죽어서 매장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슬퍼해줄 사람이 없고,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해줄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고인이 있던 자리를

보면서 사무치는 외로움이 다가올 때,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누군가가 있기에 우리가 헤어짐의 자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해보면 조문객 없는 장례식장은 너무나도 쓸쓸하고 비참합니다. 그런 상황이 유다 가운데 벌어지게 될 것임을 금지 명령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말고, 장례식을 가지 말라는 명령에 이어, 세 번째의 금지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8-9)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 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잔치집, 결혼식에 가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금지 명령은 유다에게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장례식과 결혼식은 서로 보지 못하던 사람들도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최소한의 사회활동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최소한의 사회활동조차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회와 단절되어가는 예레미야를 생각해 볼 때, 유다 역시 고립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유다에게 내려지는 재앙의 원인과 회복의 약속(10-21)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예레미야의 답변, 즉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리시는 재앙의 원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11-13)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유다 사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고,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지금 세대가 더욱 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살고있는 땅에서 쫓겨나,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내몰리는 것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내몰린 그 땅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 합니다. 죄로 인해 내몰린 자리에서 다시 같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저주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결과는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

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저주에 가까운 이런 메시지로 본문은 그치지 않습니다. 14절의 역접부사 ‘그러나’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서광을 비춥니다.

(14-15)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 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리라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것과 같이, 북방 땅, 바벨론 즉, 포로로 끌려간 모든 땅에서 유대를 해방하는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쓰여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땅은 바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 즉 가나안으로의 귀환입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생면부지의 땅으로 내던져지지만, 반드시 언약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망에 앞서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따릅니다. 그 심판에 대하여 본문은 어부와 포수에 빗대어 말합니다.

(16)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어부가 낚시하듯, 혹 어부의 그물을 피할지라도 많은 포수가 모든 산과 언덕과 바위틈을 살살이 뒤져 사냥하듯,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엄중하고 철저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거룩하신 여호와의 목전에서 숨겨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죄가 숨겨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에 있어, 심판이 우선된다는 것과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본문이 증언합니다.

(18)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두 배로 갚게 됩니다. 유다의 철저한 심판, 완벽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포로로 지내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출애굽의 세대보다 더 극적인 회복, 즉 완전한 멸망에서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약속의 땅은 더럽혀졌습니다. ‘그 미운 물건의 시체’라는 표현은 여호와 앞에 철저히 무너지고 파괴되어 시체처럼 널부러진 우상 더미를 가리킵니다. 우상들의 무너짐은 결국 그들의 무능함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에 불과한 무능한 우상을 섬기는 유다백성들

로 인해 땅이 더럽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땅의 정화를 위하여 유다의 백성들도 우상더미와 함께 이 땅에서 쫓겨나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구원의 빛이 혈통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새번역, 19B-20) 세상 만민이 모든 땅 끝에서, 주님을 찾아와 아뢰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물려준 것은, 거짓되고 헛되며, 전혀 쓸모가 없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들이 섬길 신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 신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유다의 멸망과 회복의 과정을 지켜보는 세상 만민들에게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은 거짓이었고, 헛된 것이었고, 전혀 쓸모가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자신들의 신이 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그들이 기대야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19A)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날의 피난처시여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 환난을 당할 때, 힘과 요새,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마디 덧붙이면서 마무리합니다.

(2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 즉 이스라엘의 귀환을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유다와 이방인들 모두가 지금까지 믿었던 우상더미를 버리고, 유다의 회복을 이뤄가시는 여호와를 목도함으로써, 믿음의 대상을 바로 세워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온 세상 가운데 사망의 권세가 자리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이 사망의 권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몸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멸망과 은혜를 통한 회복은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유다의 백성들과 같이 우리를 삼키려 죄가 없으려져 기다리고 있는 문을 열 것인가, 아니면 밖에 서서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 문을 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에 있어, 우리의 지체는 민감하고 민첩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문은 여는 순간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문은 여는 순간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는 교제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택 앞에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비로소 세상에서 죄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주님의 은혜가 강화되며, 온 땅에서 범죄의 소식들은 사라지고, 선행의 소식들이 그 자리들을 매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멸망을 보며, 이방인들조차 자신의 신이 거짓임을 깨닫게 되었고, 참된 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음을 봅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 살지 않고, 그것들은 도리어 사람이 다스려야 할 하나의 또다른 피조물임을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과감히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세상이 더욱 주의 은혜로 가득해지고, 선행의 소식들로 채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예레미야에게 명하신 금지명령을 통해 유다 백성에게 메시지를 주심과 같이, 다른 사람을 통해 당신에게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는지 묵상해봅시다.
2. 유다의 멸망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소식이 된 것과 같이, 당신의 삶이 다른 사람의 구원의 서정이 된 적이 있었는지 묵상해봅시다.
3. 유다의 무너진 우상더미와 같이 당신 안에 하나님보다 크게 자리하고 있는 우상더미가 무엇인지 묵상해봅시다.
4. 당신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예레미야 17:1-27

1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 그들의 마음 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2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3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4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5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7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10 나 여호와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11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12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

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13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흠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
 다 14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15 보
 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
 지어다 하나이다 16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랐
 사오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17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18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
 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
 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19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
 든 문에 서서 20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
 지어다 2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
 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22 안식일에 너희 집에
 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
 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23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
 하였느니라 24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
 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
 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25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
 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

며 26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돌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겟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와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27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유다의 죄와 벌(1-11절)

오늘 본문은 16장에 이어서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1-11절은 ‘유다의 죄와 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 그들의 마음 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유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얼마나 또렷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금강석 철필로 새긴 것과 같다고 합니다. 금강석, 다이아몬드는 모든 금속 중에서 강도가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으로 새기면 새기지 못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판’과 ‘제단뿔’에 새긴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인격의 총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마음판’에 죄를 새긴다고 하는 것은 전 인격에, 삶의 모든 영역(구석구석)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본래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인자(혜세드, 실패하지 않는 사랑)와 진리를 새기

는 곳이어야 했습니다(잠 3:3).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인자와 진리 대신에 죄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네모난 번제단 네 모퉁이에 ‘제단뿔’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할 때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에 짐승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제단뿔을 잡고서 용서를 구하면, 생명을 보호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제단뿔에 발라야 할 짐승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고, 거기에다 죄를 새겼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져서 더 이상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다의 죄가에 새겨졌거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에는 죄를 새겼지만 지금은 새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새겨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욱 비극적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면서도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만든 죄는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반복되어 나왔고, 이후에도 반복되어 나올 것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를 풀등하는 것은 부모의 속을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게 되면 충분히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아

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속이 상하는 것을 넘어서 도 무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아들이실 수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와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만약 실제로 내 자녀가 이웃에 사는 나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에게 가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며, 그 사람에게 효도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더구나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고, 자기 가족들을 돌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알코올중독과 도박중독에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부모로 여기면 아마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빌게이즈와 같은 부자이어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 백성에게서 손을 떼시고, 원수를 섬기게 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 자기 백성을 고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6)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 저주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
난 것 자체가 이미 저주입니다.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책임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막 가운데 있는 떨기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작열하는 태양빛 아래 외로이 서 있는
떨기나무는 겨우겨우 생명을 이어갈뿐더러 그 누구의 도움을 받
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건건한 땅’의 문자적인 의미는 ‘염분
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 흑시라도 땅에서 수분을 빨아올리는
데, 그것이 맑은 물이 아니라 소금물이면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마치 갈증 날 때에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도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
씀하고 있습니다.

(7-8)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5절의 ‘사람을 믿으며’에서 ‘믿다’와 7절의 ‘여호와를 의뢰하는’
에서 ‘의뢰하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신앙은 누구를 신뢰의 대상

으로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대표되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사람이 가진 소유나 능력’을 신뢰할 것인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높은 생각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계획하는 길보다 더 높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사막에 심긴 ‘떨기나무’와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습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어서 수분이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강이 나무에게 생명수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혹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작은 강이 마를 수 있고 지진이나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강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의 강이 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는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지 이렇게 고발합니다.

(9-10)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본래의 모습에서 가장 많이 변질되고, 가장 악한 상태로 바뀐 것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인격의 총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변질되고, 부패했는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 상태의 심각성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얼마나 형

편없는 존재인지 얼굴에 다 표가 난다면 정말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100%를 다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죄 이후로 인간은 세월이 지날수록 왜곡되어서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합니다. 즉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쌓고 있을 수도 있고, 벌을 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구(12-18절)

12-18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고백과 간구입니다. 그 핵심적인 부분이 이렇습니다.

(13)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흠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많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

을 떠나는 사람은 ‘흙에 기록된다’고 말을 합니다. 흙(땅)에다 자신의 이름을 아무리 진하게 써 놓아도, 또 아무리 깊이 새겨 놓아도, 더 나아가 그 땅이 아주 굳어 있다할지라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쓰거나 새긴 이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흙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흙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생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면 유다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막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19-27)

오늘 본문 17장은 유다 백성들의 범죄와 그로 인해서 당하게 될 벌, 그리고 부패한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대해서 고발하다가, 19-27절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21-2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은 10계명 중 4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3가지의 계명과 사람에게 대한 6가지 계명을 잇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날을 지키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는데, 그것은 여섯째 날로 해서 창조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일을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에 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만나가 내렸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가 평소의 2배가 내렸습니다.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주일)을 지키는 것은 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4-27)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돌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에 받게 될 복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에 당하게 될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안식일을 지키면 평안과 번영을 누리며 나라가 망할 일이 없을 것이고, 반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은 깊은 우상숭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우상에서 빠져 나오게 하는 방법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과 믿음의 원리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지 술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도 단도박하겠노라라고 결심해도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단도박하겠노라라고 손가락을 끊은 사람이, 팔에 화투를 끼워서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과 여행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술꾼들을 만나지 않게 하고, 도박꾼들과 만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PC게임에 빠져 있을 때, 게임을 그만하고 공부하라

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역시 차라리 함께 운동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리적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유다백성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큰 일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보다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과 직면하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을 직면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인식을 하면, 우상은 섬기라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아서 그 인생이 사막에 심어진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서 그 인생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사막에 심어진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은 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인생,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생, 불의의 무기로 사는 인생이라 할 수 있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은 은혜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인생, 주님을 목적 삼는 인생, 의의 무기로 사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의 삶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우리를 심어주신 분과 함께 지어져 가며,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열매가 열리는 것을 목도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손바닥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지 않고, 죄를 새기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등진 부분이 있다면 겸손하게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부분들은 더욱 주와 함께, 주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또 오늘 하루가 사막에 심어진 떨기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어진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나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금강석 철틀로 마음판과 제단뿔에 새겼다고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버티고 있는 가장 고집스러운 죄는 무엇입니까?
2.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도록(시 51:10) 중심으로 기도드려 봅시다.
3. 사막의 가지떨기 나무와 물가에 심어진 나무 중, 당신의 삶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살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겠습니까?
4.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내 손에 있음이라

예레미야 18:1-23

1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2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 주리라 하시기로 3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녹로로 일을 하는데 4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5 그 때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6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7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8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9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10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11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12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13 그러므로 여

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
 도다 14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
 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15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
 에게 분향하거나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
 어지게 하며 곁길 곧 뉘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16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 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
 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17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흠어 버
 리기를 동풍으로 함 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
 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18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
 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울법이, 지혜로운 자에게
 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19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20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
 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
 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21 그러하온즉 그
 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22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
 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울무를 놓았음이니이다 23 여
 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
 서 하니라

일하시는 하나님(1-10)

유다 백성에 대한 죄와 심판에 관하여 지적하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1-4)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 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녹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보았던 광경은 무엇일까요? 3절에 “그가 녹로로 일을 하는데” ‘녹로’ 즉 ‘돌림대’를 돌리며, 토기장이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마친 것도 아니고, 또 일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자신의 일을 집중 있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처절한 문제들을 보면서 나만 씨름하고, 나만 이를 위해 괴롭고 애쓰는 것 같지만,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라고 했습니다. 터진다는 것은 히브리어 ‘웨니쉬하트’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그

릇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죽을 하여 그릇을 새롭게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도, 모든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광경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유다 백성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토기장이가 심혈을 기울여 그릇을 빚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조심스레 다루시며, 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빚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론 죄 속에 빠져 있거나, 또한 삶의 여러 문제로 아프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주십니다. 하나님은 5절부터 10절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5-6) 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유다백성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나, 반대로 불순종을 하면 그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과 개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가 내 손에 있음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에서 문제의 파도들이 몰아치면, 우리는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다 끝내 그 문제의 파도에 휩쓸리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거할 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거할 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거하는 사람은 문제의 파도를, 마치 서핑하듯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않게 합니다.

(7-10)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리고 7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계획한 민족이, 만약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중단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반대로 복을 주시기로 계획한 민족이, 만약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기로 약속하신 복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다가, 그 심판 대상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입니다. 타락했던 니느웨에게 멸망의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요나가 선포하는 심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자, 그들에 대한 심판을 자비롭게 돌이키셨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할 때, 그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돌이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키심의 전제조건은 우리가 온전한 길로 돌아설 때입니다.

돌이킴의 은혜(11-17)

그래서 11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은 유다백성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11-15)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나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걸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11절 후반입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를 정의할 때, 일반적으로 죄를 뉘우치는 것을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회개가 단순히 지은 죄를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며 뉘우치는 것으로 국한된다면, 이것은 회개가 아닌 단순히 <후회>일 뿐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회개란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나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죄인지 알면서도 습관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결국 죄의 중독에 빠진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온 ‘길과 행위’는 바로 ‘태도와 행실’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갈등을 빚는 경우는, 대체로 바르지 못한 ‘태도와 행실’ 때문입니다. 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내 중심적인 태도와 행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약취를 풍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중심적인 태도와 행실은 누구나 미소를 짓게 만드는 향기며,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길과 행위’라는 것입니다.

(12-17)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항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결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 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 버리기를 동풍으로 함 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말에, 유다 백성들은 12절에 ‘이는
 헛되니’라고 응답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지 않을 수 없
 습니다. ‘헛되다’의 원어 ‘노아쉬’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뜻
 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
 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을 때, 그들의 미
 래는 더욱 어두워지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며, 결국 심판을 받
 아 절망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재확인해줍니다. 기독교 사상가 파스칼
 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모든 비참함과 불행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는 자(18-23)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자신들에게 책망만 하는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치부하며, 그를 죽이기 위해 구덩이를 파기도 하였습니다. 실로 유다백성은 이렇게 분별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18-20)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피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울범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동하면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면 이익보다는 손해를 보거나,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어려운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생각하면 신앙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주님이 주신 소명을 생각하면, 그 길은 분명 은혜의 길이 될 것입니다.

(21-23)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락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21-23절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유다 백성을 고발하며, 그들의 심판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백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감안 할 때,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연약함에서 빚어진 생각과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고, 이를 하나님께 그대로 토로했던 것입니다.

이런 유사한 기도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지었던 시편 109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오로지 자신을 공격하는 사울에게 악한 말을 퍼부으며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은 저주의 대상인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먼저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답답한 심정이 담긴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분노와 두려움을 해결해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만 쏟아놓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분노와 감정을 제거하여 주시고, 비어진 심령에 위로와 은혜로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결코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복수의 칼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사람에게 쏟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하나님께 쏟으면 은혜로 변화됩니다. 혹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있는 타인에 대한 분노, 미움, 원망 등을 숨기고 선별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감정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불편한 감정을 하나님께로 쏟아버리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놓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마음을 위로와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웅크리고 있는 죄악의 칼날들을 없애어, 죄의 지배력에서 벗어나, 은혜의 통치 안에 살아가면서 의의 무기로 가꾸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를 붙잡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일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손보다는 세상의 손을 잡으려 했으며, 생수의 강인 주님을 저희 마음에 채우기보다는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는 죄 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아름다운 태도와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혹여나 우리 안에 있는 벗겨야 할 죄악의 감정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쏟고, 은혜의 길로 살아가는 변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이 내 삶에서 깊숙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2. 하나님의 손이 아닌, 세상의 손에 이끌린 적이 있다면 생각해봅시다.
3. 삶에서 진정한 회개를 위해 돌이켜야 할 부분이 무엇이고, 노력해야 할 태도와 행실은 무엇인가요?
4. 내가 하나님께 쏟아야 할 감정은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예레미야 19:1-15

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2 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3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4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 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 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 곳에 채웠음이며 5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6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 곳을 도벳이나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7 내가 이 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8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 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9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

라 하셨다 하고 10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11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
 을 만큼 매장하리라 12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13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
 라 하시니 14 예레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
 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15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
 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어
 떻게 일을 하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토
 기그릇을 만들고 그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뜨려버립니
 다. 이를 목격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리듯이 이스라엘을 깨뜨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릇
 은 토기장이의 수공품이니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깨
 뜨려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았

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구덩이와 올무를 놓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구덩이와 올무에 걸리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사고(1-2)

(1-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용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신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하나님께서서는 살해 위협을 느끼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위로의 말씀이나 피신할 장소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또 다른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임무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죄악과 그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심판을 받아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너희들의 재난의 때에 등을 돌려 얼굴을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해서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수많은 경고의 목적은 행악자들이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셨던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참을 만큼 참으셨고 기다릴 만큼 기다리셨기에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행악자들에게 경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경고의 말씀을 전달했던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다른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죽이고 싶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죄악을 들추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파악하고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 행악자들에게 악행을 고발하고 심판예고를 전할 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살해 위협까지 받았을 때에는 그들에 대한 증오가 생기고 사명에 대한 회의가 들고 심신이 피곤하여 쉬기 위해 피신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들에게 벌을 내려달라는 기도까지 했습니다.

과거 사무엘을 통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고 하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토기장이의 그릇처럼 깨뜨려질 이스라엘 행악자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행

악자들의 살해 위협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행악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행악자들의 살해 위협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이나 피신할 장소를 제공받는 것 대신 행악자들에게 다시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추가적인 임무를 부여받고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이 기름보다 낮고 듣는 것이 솟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특히 사명을 감당하다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좋은 것이 좋다고 타협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취사선택해서 일부만 수행한다면, 그것은 사울이 아말렉 전투에서 전리품의 일부를 숨기며 불순종했던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추가로 부여받은 임무는 토기장이가 만든 제품인 용기를 구입하여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의 ‘하시드’ 문은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는 뜻인데, 문의 이름을 보더라도 토기장이가 토기그릇을 만들고 그것들 중에 마음에 들지 않아 깨뜨려버린 조각들을 이 문 밖에 버렸을 것입니다. 이 문 가까운 곳에 있었던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었고 쓰레기 조각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은 이곳이 죽임의 골짜기로 불리게 될 날

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용기를 깨뜨리고

(6)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 곳을 도벳이나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이유는 이곳에서 악이 행해졌는데 4절을 보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 골짜기를 채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5절을 보면 바알 우상에게 제물로 사람을 불살라 드렸다는 것입니다. 7장 31-3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이 우상에게 인신 번제를 드렸던 죄악의 장소였기에 죽임의 골짜기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 악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악을 행했습니다. 죄없는 사람들을 붙잡아 바알 우상에게 불살라 제물로 드렸으니 어찌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3절에서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행악자들이 심판을 받아 그곳이 죽임의 골짜기로 되어야 죄없는 자들을 불살라 죽인 것에 대한 정당한 보응이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행악자들이 죽임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밥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시신이 일반적인 장례절차에 따라 무덤에 묻히는 것조차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8절을 보면 행악자들이 이 일로 조롱당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9절을 보면 장차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기 전 포위되었을 때 굶주림으로 인육을 먹게 되는 비참함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와 동행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토기장이 집에서 구입한 옹기를 깨뜨리고 11절 말씀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11)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토기장이가 자신이 만든 토기 그릇을 깨뜨리고 나면 다시 그 조각들을 붙여서 그릇을 원상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했던 성읍 예루살렘을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리듯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장소, 도벳에는 행악자들의 시체를 매장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쌓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미래에 대한 경고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라는 간절한 호소이자 경고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전달했습니까? 행악자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돌아오라고 호소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15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헌능의 아들 골짜기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15)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행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꿈적하지 않았습니다.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목을 곧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13장 15, 17절에서 말씀하듯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잠16:18)이라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이 상태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교만한 사람은 죄가 없드려 문 앞에 있을 때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목은 자연스럽게 숙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피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벗어나 깨어지는 그릇이 되지 않으며 목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장소가 도벳이나 힌놈의 골짜기가 되지 않도록 자녀나 가족이나 자신을 세속적인 가치관에 인신제사를 하듯 밀어넣거나 내맡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의 몸을 죽게 하시고 의의 몸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잊지 않고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롭게 사용되도록 드리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마주치는 죄악을 이기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를 깨뜨리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를 깨뜨리게 한 장소로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살해 위협을 당한 예레미야 선지자와 토기그릇처럼 깨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사람들의 그 이후 행동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4.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직면한 것처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 일을 하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과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한 나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예레미야 20:1-18

1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2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나민 문 위층에 목에 썩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3 다음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목에 썩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 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홀이라 아니하시고 마굴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4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엮드러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5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6 바스홀아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7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 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 거리가 됨이니이다 9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10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11 그러하오나 여호와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요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나이다 12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13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14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15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16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 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17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18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예레미야와 바스홀(1-6)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른 선지자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박해와 고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은 제사

장 바스홀에게 당한 박해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제사장 바스홀은 ‘성전의 총감독’, 즉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으뜸이 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직책은 대제사장 다음가는 자리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으므로, 성전 총감독은 일반 제사장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취했던 행동과 그것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2-3)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나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 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홀이라 아니하시고 마골밋사빕이라 하시니라

바스홀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서 즉각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가했습니다. 사극에 등장하는 임금이나 성주처럼, 다른 사람에게 직접 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하옥(下獄)하라” 그렇다고 해서 직접 때리는 것과 같은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스홀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서 상대에게 말로 반박을 하지 않고,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은 그 말이 아주 맞는 말이어서 그것을 부인하고 싶을 때입니다. 바스홀은 예레미야가 올바른 선지자이고, 그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짜는 진짜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를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가짜인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스홀은 예레미야를 성전에 있는 한 방에다가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가두었습니다.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은 춘향전에서 춘향이 변사도의 수청을 거부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목에 찔던 칼과 같은 형틀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옥에 갇혔던 예레미야는 하루 만에 풀려납니다. 제 사장이었던 바스홀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풀어주었는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려난 예레미야가 바스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부터 당신의 이름은 바스홀이 아니라 마골빡사빡이라 부를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바스홀’은 ‘자유(하게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마골빡사빡’은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자유로웠다면 이제부터는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스홀은 친구들이 원수의 칼에 찔려 쓰러지는 것을 볼 것이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

하십니다.

(6) 바스홀아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바스홀아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를 직역하면, ‘너 바스홀과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인데, 바스홀을 강조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징계가 바스홀과 무관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절에 의하면 바스홀은 ‘제사장 임멜’의 아들입니다. ‘임멜’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진 제사장 24반 중에서 16번째에 뽑힌 유력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즉, 바스홀은 아주 유명한 제사장 집안 출신이고, 자신도 성전의 총감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나돗은,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역모를 일으켰을 때, 그를 따랐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유배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 출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표면적으로 보면 바스홀과 예레미야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교단의 총회장 목사와 시골 교회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바스홀을 추종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사정을 아뢰다(7-18)

7-18절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가 사역의 무거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종교권력을 가진 바스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지지해주셨지만, 그것은 제사장이 제사장에게 폭력과 감금을 당해야 하는 서글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짓눌리는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4-15)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자신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차라리 유산(流産)이 되어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것을 아버지에게 알려준 사람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득남’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득남을 전하는 사람도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득남을 전한 사람에 대한 저주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16)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 같이 되었더라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라면, 종을 뺏하였나니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성

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무너뜨리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이란 ‘소돔과 고모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가 잿더미가 되었던 것처럼 자신의 출생을 전한 사람이 벼락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자신의 처지가 괴롭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일이 얼마나 자신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처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아왕 13년(BC.627)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40년 이상을 선지자로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가 멸망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눈이 뽑힌 후 쇠사슬에 매여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며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말할 수 없는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여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자식을 삶아 먹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며, 내가 너를 모태에서 생기기도 전에 선택했고, 출생하기도 전에 구별하여서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답변했었습니다.

(렘 1:6)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당시 예레미야의 나이가 14살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간에, 아무리 생각해도 못나를 향한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처럼 자발적으로 헌신을 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그를 통해서도 이적과 큰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 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증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므로,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는 우리 말의 어감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네가 선지자의 일을 좀 해 줄래?”와 “예!”와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원문의 의미로 번역하면 이리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았습니다.”

‘당의정(糖衣錠)’이라는 알약이 있습니다. 약이 굉장히 쓰거나 평범하지 않은 맛이나 냄새로 인해서 먹기가 쉽지 않을 때, 약물의 변질을 막기 위하여 표면에 단맛을 입힌 정제(알약)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하나님께서 커다란 당의정을 하나 주시면서, “이것은 단맛이 나는 약이다. 안에도 단맛이 난다. 거의 초콜릿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이것 달지 않고, 쓴 것 아닙니까?”라고 물었더니, “아니야. 먹어 봐”해서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살짝 단 듯하더니 너무너무 쓴 것입니다. 내뱉고 싶었지만 “꿀꺽” 삼키라고 해서 삼켰습니다. 그런데 속에서도 계속 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하시며,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권유를 당해서(핍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루 종일 조롱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무슨 말씀을 전했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조롱했는지, 그가 전한 내용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8)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 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한 것은 ‘파멸과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여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 바벨론왕을 섬겨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만약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면 굶주림과 전염병이 돌아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를 맞고 갇히고, 살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나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왕의 멍에를 꺾어서 2년 만에 성전기구들과 포로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전한 예레미야의 말과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 하나냐의 말 중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는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치욕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처절한 상황이 가슴에 깊이 와 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지 않고, 오히려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전하지 않으면 마음(심장)이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고, 예레미야 자신도 잘 견디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그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예레미야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사면초가에 빠져 있고, 겁에 질려 있으니 고발하자. 고발하자”라며 모의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와 친했던 사람들마저도 예레미야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를 위협하고,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니 그 어려움은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면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불 일 듯이 일어나고. 그래서 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두 사람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바스홀의 길입니다. 그는 소위 명문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고, 자신도 일반 제사장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인 성전의 총감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의의 무기(도구)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레미야의 길입니다. 그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고, 자신이 생각해도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기에는 한없이 부족하다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의의 무기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의 삶의 길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걸었던 길과 같이,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기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레미야로 살아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쉽지 않은 사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항복해야 산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나 지나야 돌아온다고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바스홀과 같은 최고의 종교권력자에게 고난을 당한 것은 물론 자신이 믿었던 사람 친한 사람들마저 예레미야를 고발하기 위해서 모의를 꾸밀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던져 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가 나라가 망하는 암울하고, 절망의 시기였지만, 의의 도구로 살았던 예레미야로 인해서 소망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가정이 비록 암울하게 보이고, 다양한 갈등들이 존재할지라도 환경을 탓하고, 환경에 함몰되어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에 예레미야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예레미야로, 의의 병기로 사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새로워지고, 오염된 부분이 정화되고, 어두움이 걷어지는 역사를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바스홀(자유)'은 이름이 '마골밋사빔(사방으로 두려움)'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어떤 의미로 불리기를 바라십니까?
2.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과 같고, 골수에 사무쳐 견딜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삶과 신앙에서 하나님의 향한 가장 간절한 열정은 무엇입니까?
3. 예레미야는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주어진 소명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겨가고 있습니까?
4. 바스홀의 길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길을 걸으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예레미야 21:1-14

1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과 제사장 미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2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3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4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5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6 내가 또 사람이 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7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9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10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11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와 말을 들으라 1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끝 자가 없으리라 13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14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심판을 예고하다(1-10)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이는 BC 588년의 일로, 이집트의 파라오 호브라의 군사지원에 힘입어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을 반역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군대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오래전부터 이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 예언했음을 기억하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1)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예레미야를 찾아갔던 사람은 모두 둘, 바스홀과 스바냐입니다.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은 20장에서 예레미야를 때렸던 임멜의 아들 바스홀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바스홀은 예레미야 38장 4절에 언급된 “대신들”의 범주에 드는 사람으로, 정치인이었습니다. 한편 스바냐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렘 29:25, 29; 37:3). 만약 이 스바냐가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언급된 부제사장이라면, 그는 사건 당시, 유다의 제사장 중에 두 번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지금 예레미야를 찾아온 바스홀과 스바냐는 왕이 신임하는 정치인과 종교인으로, 바벨론의 침공을 초래한 친이집트 그룹의 핵심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지난날에 대한 반성 없이, 위기에 서 나라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꺾등으로 흘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평소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 슈퍼맨처럼 나타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재판기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공급해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이 주신 인생을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품고 이뤄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교우님이 되시기를 빕니다.

예레미야의 대답은 절망적입니다.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난 시간 동안 한결같이 선포해왔던 메시지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포위 공격으로부터 기적적인 구출은 없을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싸울 것이다.”입니다.

(4-7)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강한 팔로, 그동안의 진노를 유다에게 쏟으실 것이고,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다 쳐서 죽게 만들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포위된 상황입니다. 얼마간의 비축한 식량이 바닥이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고, 전염병이 발생하여 사람과 짐승들이 죽어나갑니다. 전투력이 약해지고, 성이 함락되면, 전염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비도, 연민도, 동정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8-10)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행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는 선포입니다. 사는 길은 딱 하나, 항복뿐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는 이 말은, 다른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지만 예레미야에서만 네 번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을 덤으로 얻게 된

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나라를 등진 배신자의 조언처럼 들렸을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행복하기를 거절한 사람은 죽을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삶의 판단 근거가 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등졌습시다. 맹렬한 진노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살려면 행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금과옥조처럼 여겼던 유다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곧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목숨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두 발 디디고 살아가는 이 나라가 참 소중합니다. 이 나라의 안녕과 번영,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바대로 움직이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신의 정치지향으로 사람들을 손가락질 해서도 안되고, 자신의 지향점과 다르다 하여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인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인간 논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라의 안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찾아온 왕의 사절단 앞에서, 행복하는 사람만이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

미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세상의 생각과 정면으로 부딪히더라도, 예레미야처럼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선포하고 살아갈 용기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걸어야 할, 주님 따르는 길입니다.

유다 왕가에 내리는 경고와 심판의 말씀(11-14)

11절부터는 유다 왕가에 내리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왕의 사절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끝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인간 왕으로서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명령합니다. 왕이 아침마다 공무를 집행할 때,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이들을 정의로운 판결로 구원해야 합니다. 힘 있는 이들과 연이 닿지 않고, 힘이 없어 자기
가 가진 것조차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 하나

님 나라의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가장 본연의 일에 충실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상황입니다. 나라가 바람 앞의 등불인 상황에,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충실하게 왕의 책무를 감당하라”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물러나는 것, 다시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주어진 하루를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바벨론이 침공을 해왔지만 실상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과 발일 뿐, 유다를 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13-14)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오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삼면이 급경사의 계곡으로 둘러 쌓여 성을 지키기에 아주 유리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이 처음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원주민이었던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며,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삼하5:6)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천혜의 요새를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기회를 주시며, 돌이키기를 기다

리지만 진정한 회개 없이 자기 욕망에만 복무하며 살아간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게 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의 지나온 여정을 반추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길을 조율해야 합니다. 바로 이 삶을 위해, 우리 주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무기로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임박한 환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평화를 기대했던 시드기야와 집권 세력에게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를 곱씹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그러진 부분은 없는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의의 무기로 우리 삶을 드리는 데 방해되는 부분은 없는지 묵상하는 날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당장 해결해야 할 화급한 상황을 맞이하고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맞이하는 부정적 상황조차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던 유다가 이토록 당황하는 모습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서있는 자리는 어디에 가까운지 성찰합니다. 선지자의 자리에서 멀지 않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우리 몸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왕의 사절단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요청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2). 자신의 삶은 변화시키지 않은 채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는 유다의 태도를 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2. 나라를 버리고,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이라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생각해보고, “애국”이라는 세상의 통념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여기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3. 당장이라도 성이 함락하면 죽을 지경임에도, 유다 왕가에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12)은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습니까?
4. “행위대로 벌할 것이다”(14)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슬피 올라

예레미야 22:1-30

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2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지니라 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 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4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5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6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7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8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9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10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 간 자를 위하여 슬피 올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11 여호와

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 곳에서 나간 살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12 잡혀 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13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4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15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16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앎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18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19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 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20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네 소리를 높이며 아바람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21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22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 때에 내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23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라 24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25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26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27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28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나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나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29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30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지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22장은 21장에 이어 유다 왕들과 남유다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유다 왕의 집에 전하는 말씀(1-9)

유다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매우 선명하였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오를 왕들이 계속 이어지고 나라가 강해질 것이요 그렇지 않고 힘의 논리로 약자들에 대한 착취와 학대가 이어지면 유다 왕가는 몰락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가는 실상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했고 오히려 세상과 똑같은 힘의 논리로 백성들의 힘과 재산을 탈취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며 사람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 멸망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8-9)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이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남 유다가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숭배가 무서운 죄인 이유는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 언약을 버리게 됨으로 그 이후의 모든 관계가 함께 어그러지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이면 이후 모든 단추가 잘못 꿰이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왕들과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도자가 그 백성과 약자들을 사랑할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폭력과 착취와 학대만 남은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심판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이 힘을 얻고 권력을 얻은 사람은 그 힘을 사회 정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에게

주신 힘과 권력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사회적 정의를 이루어 갈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함께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살롬에 대한 말씀(10-12)

하나님께서서는 계속해서 살롬 왕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살롬 왕은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왕의 아들로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 유다에서 3개월 정도 통치하다가 애굽에 끌려가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0)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집간 자를 위하여 슬피 올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기서 죽은 자는 요시야 왕을 의미합니다.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투에서 죽고 나서 백성들이 새롭게 새운 왕이 바로 '살롬, 여호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운 그 왕조차도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국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요시야 왕이 문제가 아니라 끌려간 살롬 왕이 당할 심판에 대하여 애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 걱정 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남 유다는 죽은 자를 위한 애통이 아니라 비참하게 끌려간 왕과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일야방성대곡’을 읊어야 했었지만, 예레미야를 빼고 그 누구도 애가를 지어 슬퍼하거나 뉘우치지 않습니다. 혹여나 이 무지가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의 문제를 보고 애통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에 무너진 부분을 바라보고 애통할 수 있는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13-19)

여호아하스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간 뒤 애굽의 느고는 여호아하스의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막대한 벌금을 내도록 합니다. 여호야김은 그 벌금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징수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백성들은 고통당합니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호화로운 궁전을 짓고 그것을 위해 일한 일꾼들에게 샅을 지불하지 않음으로 나라의 공의를 어지럽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야김은 왜 아버지처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화려한 궁을 짓는데 집중했는지 궁금해집니다.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가 죽고 백성들이 동생인 여호아하스를 더 인정하여 먼저 왕으로 세웠던 상처가 있었고 그 이후 왕이 된 자신의 처지도 실은 애굽의 섭정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느라 왕의 본질을 망각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럴듯한 왕궁에 살면 자신의 가치가 증명되고 인정받는 왕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왕의 책무는 등한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15-16)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앎이 아니냐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요시야가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 뜻대로 행할 수 있었고 그것이 그를 형통하게 하였는데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했고 보여지는 삶을 사느라 본질을 망각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보여지는 것을 위해 삶을 허비하는 현대인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넓고 화려한 궁을 짓느라 백성들의 아픔과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보지 못했던 여호야김처럼 우리 또한 넓은 집, 좋은 차, 높은 스펙을 추구하느라 정작 가족의 아픔, 이웃의 고통,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한 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여호야김의 최후는 비참하게 끝을 맺습니다.

(18-19)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킴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 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어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 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하나님과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의 탐욕과 화려함을 추구하며 백성들의 고향을 짜 먹고 일꾼의 삯을 주지 않은 여호아킴의 최후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버림받는 모습입니다. 온갖 갑질과 착취를 통해 부를 이루었지만 정작 그의 죽음 앞에 진정 슬픔의 눈물 한 방울 흘려줄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나의 장례식을 떠올려 보며 그 자리에 참여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며 나의 삶이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지 반추함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20-23)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에 찾아올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을 이끌던 왕들,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이 의지하던 이방 나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포로가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2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21)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습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길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숲에 길이 날 때는 한번, 두 번 걸어간다고 길이 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꾸준히 걸어가면 그곳은 길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두 번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꾸준히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지금까지 남아있었지만 꺾지 않은 그들의 불순종의 습관으로 결국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불순종이 습관이 된 상태는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었는데 그 죄악을 잘라내지 못하고 내 삶의 태도 곧 습관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영혼을 좀먹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니야에 대한 말씀(24-30)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느부갓네살에게 대항하다 몰락한 이후 그의 아들 고니야 곧 여호야긴이 이어서 잠시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 통치기한은 겨우 100일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느부갓네살왕에게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 주인이 좋아하지 그릇을 창고에 두거나 버리는 것처럼 여김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29-30)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땅을 세 번이나 부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누군가의 이름을 세 번 부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세 번이나 땅을 부르는 것은 어릴 적부터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고니야는 형통하지 못하고 다윗의 왕위에 앉아 다스릴 자녀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니야는 아들이 있었지만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지 못하고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남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고 남 유다는 몰락합니다.

사울로 시작했던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게 됩니다. 분단된 후 북이스라엘보다 좀 나았지만 남 유다의 왕들의 역사도 모두가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나온 왕들만 보아도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의 악을 행하고 자신의 탐

욕과 외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느라 백성들의 고향을 쫓내고 약자들에게는 무관심했던 죄인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왕의 실패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했던 왕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왕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으로 서서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켜고 백성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순종에 앞장서야 했지만 오히려 죄의 길과 우상숭배의 앞잡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유다왕조의 몰락을 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허리끈을 동이고 등불을 켜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충성하고 있는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로 인하여 탐욕과 죄악의 길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나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깨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 유다의 왕들은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실패했고 그 결과 가정과 나라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서는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상을 새롭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실은 그 자리에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책임도 나 몰라라 한 채 하나님과 백성들과 함께 지어져가기보다 나 자신만 세워가기를 원했던 유다 왕들의 몰락을 보았습니다.

장차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고 기억될지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만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지어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왕 되신 예수님처럼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며 나의 삶에 적용할 부분은 없는지 묵상하여 봅시다.
2. 여호야김이 행했던 악행들과 추구했던 가치들을 살펴보면서 혹시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여호야김이 범했던 악행과 추구했던 가치관이 숨어있지는 않은지 묵상하여 봅시다.
3.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버림받은 여호야김의 비참한 최후를 살펴보며 나의 장례식에 누가 올지, 어떤 표정일지, 나에게 대하여 어떤 대화를 나눌지 묵상하여 봅시다.
4.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불순종했던 남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의 죄악을 떠올려보며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에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예레미야 23:1-32

1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 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2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 떼를 흘리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3 내가 내 양 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 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4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5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6 그의 날에 유대를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7 그러므로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8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9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10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
 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라
 11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
 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12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
 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3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
 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14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
 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리와 다름이 없느니라 15 그러므로 만군
 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
 들에게 썩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
 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16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
 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17 항상 그
 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
 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18 누가 여호와와 회
 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
 냐 19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
 리를 칠 것이라 20 여호와와 진노가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
 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21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달음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22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23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यो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24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25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26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의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27 그들이 서로 꿈 꾸는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28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꿈을 꾸는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29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30 여호와와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1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2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포로 귀환과 영원한 통치(1-8)

오늘 본문은 유다의 신실하지 못한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과 거짓선지자들의 언행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8절은

21장에서 시작된 유다의 왕들과 유다에 대한 심판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으로, 유다백성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며,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합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2:3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렘 22:30)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었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유다에는 모두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4명의 왕은 모두 요시아왕의 세 아들과 손자입니다. 19대 왕인 여호야긴(요시아의 손자)과 마지막 20대 왕인 시드기야(요시아의 셋째 아들)가 모두 바벨론에서 죽었습니다. 그럼으로 혈통을 통한 다윗의 자손은 왕으로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와 같은 비극적인 결과는 바르지 못한 왕들의 악행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1-2)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 떼를 멸하며 흠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 떼를 흠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자는 선지자나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왕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이 양 떼(백성들)를 흩어지게 하고, 돌보지 않은 것을 ‘악행’이라고 정의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응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내 목장의 양 떼’, ‘내 백성’, ‘내 양 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깊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왕들의 불신앙과 악행으로 인해 유다 백성들이 흩어져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영원한 왕을 세우실 것과 그 왕의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6)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의로운 가지’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메시아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 ‘정의와 공의’라고 합니다. ‘정의’가 재판 판결과 같은 ‘하나님의 행하심의 의로움’이라고 한다면, ‘공의’는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장에서 유다가 망하는 길로 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의와 공의’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그 원칙대로 다

스리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유대와 이스라엘은 더 이상 포로됨이 없이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나, 가정, 교회,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면 우리 삶과 가정, 교회, 사회는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9-15)

9-40절까지는 거짓선지자의 행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9-15절은 거짓 선지자들이 저지르는 악행을 고발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9)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참되고 바른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한 말씀, 그들의 거짓된 예언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그에게 일어난 상황을 4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는 ‘마음이 상하며’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심장 한 가운데가 터지며’입니다. 견딜 수 없는 심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억장이 무너지며’입니다. 둘째는 ‘모든 뼈가 떨리며’입니다. 마음이 상하며와 같이 뼈가 떨리는 것도 감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두려움과 고민이 극에 달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셋째는 ‘취한 사람 같으며’입니다. 술에 많이 취하게 되면, 제 몸을 가누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더 취하게 되면 흔히 하는 말로 ‘필름이 끊겼다’고 하듯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고 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포도주 속을 건너간 남자 같다’입니다.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인 ‘술독에 빠져 산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 네 표현은 자신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포로와 같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1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선지자와 제사장은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두 기둥과도 같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탱하게 해준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야긴(저가 세우리라)’과 ‘보아스(그에게 능력이 있다)’이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은 유다 백성들의 신앙에 야

긴과 보아스와 같았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제 역할을 못해도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둘 다 썩어버렸습니다. ‘사악하다’는 ‘오염되어 부패하다’의 의미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정결해야 할 사람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처럼, 같은 선지자이고 제사장인데 속은 신앙지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이 11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내 집에서’입니다. 성전은 가장 구별된 장소입니다. 아무리 악하고 나쁜 사람도 성전에서는 덜 악한 척하고, 선한 척을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악을 자행하였다는 것은 성전 밖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깊은 도덕적 타락과 불신앙 속에 있었다면, 일반 백성들은 더 깊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그들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썩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썩을 먹이시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썩을 먹인다’는 것은 썩으로 떡을 만들어 먹이시고, 썩국을 끓여 먹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썩’은 쓰디 쓴맛을 지닌

독초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꿀’과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독한 물’은 ‘독이 든 물’의 의미로 ‘쓸개’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쭈’와 ‘독한 물’은 심판의 철저함과 극심한 고통,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16-32)

16-32절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들의 속임에 대해 진노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리하였습니다.

(17)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멸하고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리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합니다. 가짜는 진짜인 척 해야 하기 때문에 ‘진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자주 운운하거나,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자주 들먹거리는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대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서, 즉 마음이 완전히 굳은 진흙과도 같아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가 평안하리라”, 즉,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지금처럼 사시면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위암 말기 시한부 인생이라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먹는 것마다 전부 토해 올리는 사람에게 소화제 2알 주면서 “이것 먹으면 금방 괜찮아질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상태라 점점 정신이 혼미해 지고 있는데, 소독약을 발라주며, “괜찮습니다. 2-3일 지나면 집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회의’는 ‘조언’이라는 의미도 있고, ‘교제’라는 의미도 있습

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조언을 들었더라면 그렇게 전하지 않고, 제대로 전했다면 백성들의 걸음을 돌이켰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로의 역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29절의 말씀처럼 악한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기능도 있고, 심판을 수행하는 방망이와 같은 기능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사탕 발린 소리로 거짓 예언들을 전하게 된 것은 그것을 백성들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거짓된 삶 위에 거짓 선지자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엉뚱한 길을 가고 있을 때, “아무 일 없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예요”라고 말해주는 목회자를 원하면 우리가 바로 유다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바르고도 신실한 선지자는 두 가지의 특징,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음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고, 거짓된 꿈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잘못 전하며, 하나님

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여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해도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자기가 꾸민 꿈을 계시인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께 받지 않은 말씀을 받은 것처럼 전하는 선지자는 심판을 받지만,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미혹을 당하고 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등을 듣기 위해 날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의 등을 앞세우고, 순종의 걸음을 걷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된 평화의 메시지를 즐기기보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할 부분은 돌이키게 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결단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오늘도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게 하시고, 말씀인 등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의로운 가지이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의로운 가지이신 주님은 '정의(의로운 행함)'와 '공의(의로운 성품)'으로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당신의 삶에 실천해야 할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2.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했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3.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물을 태우는 불과 같고, 심판하는 방망이와 같다고 하십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로 정의해 보십시오.
4. 거짓 예언을 즐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이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볼것이라

예레미야 23:33-24:10

33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네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나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34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35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36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어 사용함이니라 하고 37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38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39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40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1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קים의 아들 여고나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2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3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4 여호와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6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혈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7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8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9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 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10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23장은 여호와와 양 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인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가운데, 참 선지자와의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눈의 시신경이 붙잡는 대로 보고, 귀의 고막이 울리는 대로 듣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감추어지고 은밀한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길으로는

진실한 목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게 하는 늑대들이 많이 있으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의 죄에 대한 노여움으로 폭풍과 회오리바람 같은 심판이 불어 닥칠 것’이라고 할 때(19절),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심판의 메시지를 “엄중한 말씀”이라며 조롱합니다. 23장 33절부터 40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달려나갔고, 말하지 않았는데 예언하는 거짓선지자들을 어떻게 책망하실지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23:33-40)

(33-34)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네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나 묻느냐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와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엄중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7번 반복이 되는데, 엄중하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무거운 짐’이라는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신탁’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우상숭배의 악행을 저지르며 형식적인 종교생

활을 했고, 나그네와 고아들을 돌보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대가로 바벨론이 유다의 문지방에 이르러 광광거리며 거세계 문을 두들겨 벗긴 후에 이들을 포로로 잡아 가며 마침내 예루살렘 성은 파괴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집에 어떤 해도 임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기에 안전하다”는 거짓 위로를 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저지른 불법을 정당하기 위해 희생 제물을 남용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회개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 주를 보내다가 주일이 되자 형식적으로 예배에 나아와 회개하려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롬 6:15)고 단호히 책망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예나 지금이나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레미야의 시대나 지금이나 모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부인하는 거짓 낙관주의를 지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운 설교자들의 회개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참된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우리의 심령에 큰 무게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무겁고 힘든 것을 지니고 있지 않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알곡과 같았습니다.

속되고 오만한 자들이 이 말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 즉, “무거운 짐”이라며 웃음거리와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마치 “너희가 바로 그 짐이다”라고 말씀하시듯 짐과 같이 그들을 버리시고 그 집안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5-36)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와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어 사용함이니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말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은 예를 갖추어 공손하고 진지하게 말해야 합니다. 때론 하나님과 자신이 가까운 관계임을 자랑하거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 말씀이 사용된 문맥과 상관없이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속되고 불경스럽게 희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생각하여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하여 꾸짖고 징계하는 아버지를 비웃으면서 “나를 혼낼 거면 다른 집 아들 할래요”라고 겁 없이 말하는 아들이 있다면 그는 갑절로 혼나봐야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말은 내면 깊숙이 담겨있는 뜻을 드러낸, 인격의 표현입니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결과를 받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39-40)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마치 에덴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던 아담이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서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자, 동편으로 쫓겨나는 장면이 연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삼상 2:30)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이제는 알지 못한 자가 되었고, 주었던 선물은 빼앗기며,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백성이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목전에서 영원한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24:1-10)

(1)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קים의 아들 여고나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대로(22:24-30) 여고나와 유다의 높은 관리들, 목공, 철공들이 바벨론으로 사로 잡혀 간 것을 목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실성을 당대에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와 지위를 나타내는 왕과 높은 관리들, 집을 만드는 목공, 무기와 갑옷을 만들어 힘을 보여주는 철공들 모두 속절없이 사로잡혀갔습니다(왕하 24:14-16 참조).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자신을 질투하는 분으로 소개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권세를 자랑하고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과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으로 존재한다면,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죄 하여 자신을 버린 자들을 향해 진노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붙잡히고 포로로 끌려간 고난이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을 24장의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이셨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무화과는 가나안 땅의 특산물이면서 유대 민족을 상징합니다.(마 21:18-22; 24:32-35; 눅 13:6-9)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광주리 안에 담긴 무화과는 여호와 앞에 보여지고 알려지며 판단되는 두 백성을 나타냅니다. 중간 상태 없이 한 쪽은 극히 좋은 백성이고, 한 쪽은 극히 나쁜 백성입니다.

비유로 설명되는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성전 앞에 놓인 광주리’가 처음 등장하는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들어가 거주하게 될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거두어 그것을 광주리에 담고 성전에 가지고 갑니다. 제사장은 그 광주리를 받아 제단 앞에 놓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과 능력으로 압제당하던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사 은혜로 얻은 이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두고 경배를 드립니다. 또한, 받은 복을 기뻐함으로 주신 열매를 그 가운데 거주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나누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셔서 보배로운 백성,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신 26:19).

신명기의 이 명령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깨어졌고 그들의 죄악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

의 주권과 은혜로 출애굽을 넘어서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5-7)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뜻 보기에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환난을 당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좋은 무화과로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징계로 환난당하여 포로 된 자들이 광주리에 담긴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돌보시고 좋게 하여 이들이 전심으로 돌아와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방이 막혀 스스로 구원할 어떤 능력과 의가 없는 포로 된 자들의 마음에 머리로서가 아닌 전인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회개케 하여 바른 관계와 위치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8-10)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내뱉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 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원으로 삼지 않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패역한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극히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려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무화과로 보여지고 알려지며 판단되기를 원하십니까? 개인으로서 또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우리 역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유혹을 받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히 12:8) 그러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고난 그 자체로서는 무겁고, 괴롭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부어질 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죄 때문에 사망에 포로 되었던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보배로운 백성의 자리로 회복케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

신 하나님은 그 백성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라 말씀하셨습니다(렘 13:11).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루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명예와 영광의 하루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없어질 세상의 권세와 힘을 의지하고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깨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우리 주변에 있는 과부와 고아, 이방인은 누구인지 찾아 섬겨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들도 구원의 즐거움에 동참케 해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전해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이 은혜로 얻은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서로 매어야 할 띠를 허리에 띠고 등불을 들어 약한 자를 찾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때론 바르게 믿지 못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징계와 환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사망에서 부활을 이루어내신 공훈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일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찬송의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의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신탁과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2.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나쁜 무화과는 각각 어떤 백성을 나타냅니까?
3.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또는 악한 세상의 구조로부터 받게 되는 징계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취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4.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내 주변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꾸준히, 그리고 끊임없이

예레미야 25:1-38

1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2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3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열셋째 해부터 오늘까지 이십삼 년 동안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5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6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써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7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써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8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 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

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0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
 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댕돌 소리
 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11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칠십 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12 여호
 와의 말씀이니라 칠십 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
 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별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13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14 그
 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15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
 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16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17 내가 여호와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
 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18 예루
 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람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19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20 모든 섞
 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
 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21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22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23 드단과 데미와 부스와 살쩍을 깎은 모든 자와 24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25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26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
 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
 리라 27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

썸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28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29 보라 내가 내 이름
 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
 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씀이
 니라 30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
 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
 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31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
 와께서 못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32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
 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33 그 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
 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
 에서 분토가 되리다 34 너희 목자들이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 떼의
 인도자들이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 당할 날과 흡음을 당
 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35 목
 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 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다 36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 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
 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37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와의 진
 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38 그가 젊은 사자 같이 그 굴
 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
 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다 하시니라

꾸준히, 그리고 끊임없이(1-14)

1-14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한 유다가 멸망하여 70년 동안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오늘 예언의 말씀은 특정 부류인 왕실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다의 모든 백성을 향한 말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백성이 같은 악을 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3절과 4절, 7절과 8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의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7절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8절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고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류 역사 이래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예레미야를 통해 23년 전부터 오늘까지 꾸준히,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귀를 닫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며 경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무려 23년 동안 지치지 않고 변함없는 태도로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유다 백성은 지치지 않고 변함없는 태도로 하나님을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늬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5)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하면 나 여호와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하나님께서서는 누구라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매우 단순하고 쉬운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죄악에서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죄의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하라는 선포입니다. 회개는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기꺼이 따라야만 가능합니다. 잘못했음을 인지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늬조차 하지 않은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은 더 이상 매일 아침 집집마다 들렸

던 땀 소리도 끊길 것이며, 일상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작은 등불조차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칠십 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삶의 자리에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나지 않으며, 아무런 불빛도 없을 것임을 예고하신 하나님께서 유다는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70년간 이방 바벨론을 섬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7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주변의 이방 민족과 다름없이 취급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70년 동안 유다 백성에게는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에게 허락된 것은 고통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억압의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유다 백성이 다시 회복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기간은 유다 백성이 악한 길과 악행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허락하신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격으로 다시 회복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23년간 예레미야에게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외치게 하심으로 유다 백성에게 돌아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회개의 기회가 아닌 죄의 기회로 삼아버린 유다는 이방 민족을 통해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죄의 기회로 삼지 않기 위해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

에 잠잠히 귀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날로 세워가야 하겠습니까.

진노의 술잔(15-29)

15절에서 29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것임을 증거합니다.

(15)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피해갈 수 있는 민족은 없었습니다.

(29)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열방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도록 명하고 계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의로운 진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할지라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임하지 않은 세상 마지막 날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도바울을 통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자리가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바꾸어가야 하겠습니까.

분토가 되리로다(30-38)

30절에서 38절 말씀은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으며, 그 심판이 여호와에 의하여 주도된다는 사실과 함께 심판의 참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그로 인한 황폐함과 통곡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었습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신다’는 표현은 심판의 대상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두려움을 조성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먹잇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굶주린 사자의 이미지는 상대방에게 조금의 인정도 베풀지 않고, 철저히 파멸시킨다는 의미와 굶주린 사자로부터 피할 자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범죄한 열방을 향해 매우 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게 나타날 것인지 충격적인 표현으로 33절이 증거합니다.

(33) 그 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어느 한구석도 예외 없이 여호와와 진노의 재앙으로 습격을 당한 결과 모든 땅에 살육당한 시체가 널부러져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이 죽어 땅에 묻히지 못하고 길거리에 버려진다는 것만큼 큰 저주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저주는 고대 근동지역에만 큰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 죄 한 열방을 향한 가장 저주스러운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자가 목초지 위의 평화로운 양 떼를 유린해 버리듯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식 없이 안일하게 지내던 열방을 초토화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은 양 떼를 지켜야 하는 목자들은 절망 가운데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시행된 결과 비명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37절이 증거합니다.

(37)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와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적막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로 병어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열기 앞에서 그 누구도 아무 소리 낼 수 없을 정도의 파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도, 피할 기회도 없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할 두렵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사람으로 우리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오늘 말씀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자이냐에 따라 양이 안전할 수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부모에게 자녀들을 맡기셨습니다. 평화로운 목장인 가정에서 혼인 잔치에 간 주인을 제대로 기다리는 부모를 본받아 일평생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우리의 각 가정에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죄악 된 세상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부모를 통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가정은 자라갈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외침을 외면했던 범죄 한 유다는 바벨론 통치의 그늘 아래 70년 동안 자신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읽는 우리는 그때 유다가 왜 회개하지 않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워하는 우리가 바로 유다 백성과 다를 것이 없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어리석은 백성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우리를 위한 일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의 구성원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는 5월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귀에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한다면 사랑과 인내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5월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도 변함없이 꾸준히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2. 오늘 본문에서 내게 부딪히는 메시지는 어느 구절입니까?
3. 나로 인해 내 주변이 폐허가 되어 가는 곳이 있습니까?
4. 내 주변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26:1-24

1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서
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라 너는 여호와와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3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
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
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4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5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
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6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7 예레미야가 여호와와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8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
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9 어찌하
여 네가 여호와와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10 유다의 고

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와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와 성
 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며 11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12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
 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13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14 보
 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15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16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17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
 여 이르기를 18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
 셨느니라 시온은 밭 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
 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19 유다의 왕 히
 스키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
 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20 또 여호와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랴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
 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21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
 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22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23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24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 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 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성전 뜰 설교-불순종에 대한 심판(1-7)

선지서 예레미야는 요시아왕 때부터 예루살렘 함락 직후까지를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장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에 이어서 2-25장까지는 왜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26-45장에는 예루살렘 함락 전후와 바벨론 포로 전후에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이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로 시작되는데, 유다의 18대 임금이었던 여호야김왕(B.C. 609-598, 11년 통치)이 등극한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본문인 25장은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보다 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난을 당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인, 성전 뜰에서 행한 설교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2-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거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는 말씀을 전하는데, 한 마디도 빠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말을 전달해 주기를 요청할 때에 “지금 내가 하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전하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함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상황이 굉장히 심각함을 나타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혹 유대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내리려던 재앙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와야 하는데, ‘각각’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공동체성이 강하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는 ‘각각’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체적으로 보시지만, 개개인을 구별하시고 주목하십니다. 가족들이 주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주님을 믿지 않는 내가 텅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 없듯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공동체적

으로 해야 하지만, 그것은 ‘각각’의 연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중요한데, ‘성전 뜰’이라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찾은 것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이전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성전에 온 사람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아오도록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잘못된 삶을 돌이키지 않고, ‘제사지상주의’, 제사를 드리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고치지 않아도 상관없고, ‘성전지상주의’, 성전에 올라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좋아하시고, 무조건 복을 내려주신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올라가셔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도다”라며 분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4-6)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춧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전 안에 있어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25:4절에서는 ‘끊임없이’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꾸준히’와 ‘끊임없이’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 90% 이상은 순종하기 싫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내게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도 오고, 예배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오고, 기도 중에도 오고, 문득 떠오르기도 합니다. 문제는 내 속에 순종에 대한 의지와 결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없다면, 성전(예배당)에 있어도 소용이 없고, 반대로 순종에 대한 의지와 결단이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예레미야의 살해 위협, 우리야의 순교(8-24)

8-24절은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게 되는 살해의 위협과 위기 모면, 그리고 우리야의 죽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8-9)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뜰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악한 길
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랬
더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잡
고 말하기를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가 전하는 복음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들이 40 여명이나 있었었습니다. 그 결의가 얼마나 강했던
지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종교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고
야 말겠다고 결의를 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의 임재장소이신 성전을 파괴하지 않으실 것이고,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을 황폐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재판으로 말하면, 검사가 법
정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죄인 예레미야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2-13)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종교지도자들을 비롯한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나로 하여금 성전과 예루살렘을 향해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꾸어야 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들의 길과 행위(삶)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4-15)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의견에 좋은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라’는 것은 사사시대의 특징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강조해서 말합니다. “나를 죽인다면, 예루살렘은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는 나를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담대한, 그리고 정직한 말에 마음이 움
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고관들과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사람에게
사형선고를 내릴만한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아이
러니합니다. 고관(귀족)들과 일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
고 마음을 돌이켰는데, 종교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전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제사장
이자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것
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
림하신 후, 사도 베드로가 성령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
을 때, 사람들은 마음이 찢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
고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스테반도 동일하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찢린 것까지는 동일했는데, 사람들은 스테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의무와 책임

이 있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 교인들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는 것을 반대하는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은 미가 선지자 시대 때의 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8-19)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 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의 시대는 약 1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가 선지자 활동을 할 때는 히스기야왕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지만, 그의 통치 초기는 아버지 아하스왕의 악행의 결과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은 폐허 더미가 되고, 성전은 나무만 무성한 숲이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와 동일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왕과 유다 백성들이 미가 선지자를 죽이기는커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 재앙을 초래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예루살렘이 말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전한,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여호야김왕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야 선지자가 그 사실을 알고 애굽까지 도망을 갔는데, 여호야김왕은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어 잡아와서는 죽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이 내리고 있습니다.

(24)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 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야 선지자는 죽임을 당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히감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아히감은 요시아왕 때에 서기관을 지내며, 신앙개혁을 지지했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렷하게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 그리고 죽임을 당한 우리야 선지자 그룹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룹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자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앞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진리의 띠를 띠고 말씀의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뒤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 자신들의 기득권으로 띠를 띠고 있습니다.

또 또렷하게 대조되는 두 부류는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

고 회개한 히스기야왕과 그 당시의 유다 백성들과 예레미야 말씀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야 선지자를 죽인 여호야김 왕과 그 당시의 유다 백성들입니다. 역시 앞의 사람들은 말씀의 띠를 띤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뒤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띠를 띤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말씀의 띠를 띠고, 말씀의 등불을 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거나 들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드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이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허리에 띠를 띠게 하시고, 진리의 등불을 켜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거나,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뜰에서, 성전을 찾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악행에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예배당을 찾을 때에 바꾸어야 할 길과 신앙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2.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도 전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고쳐야 할 길과 행위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까?
3.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히감의 도움으로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아히감과 같은 역할을 해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당신은 누구에게 아히감과 같은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까?
4.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호와와 말씀 들으라

예레미야 27:1-22

1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명예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3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4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5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6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7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8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명예를 메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9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10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

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11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명을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받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
 셧다 하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12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
 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명을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13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
 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14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
 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15 이는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
 들이 멸망하리라 16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
 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17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
 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18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와의 성전애와 유다의 왕의 궁전애와 예루살
 렘에 남아 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19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아와 받침들
 과 이 성에 남아 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20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
 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21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22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 와 이 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유다의 죄로 인한 멍에(1-11)

유다의 마지막 3명의 왕은 모두 요시아 왕의 아들과 손자입니다. 18대왕은 여호야김(요시아의 첫째 아들)이고 19대 왕은 여호야긴(요시아의 손자)이며 마지막 20대 왕은 시드기야(요시아의 셋째 아들)입니다. 본문 1절은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말하며 여호야김의 시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3절과 12절 그리고 28장 1절을 보면 여호야김이 아닌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있기에 오늘 본문은 여호야김이 아닌 시드기야의 통치 시대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1-11절은 유다의 죄로 인해 바벨론의 멍에를 메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한 예언이며 멍에

는 유다를 바벨론이 통치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통치는 유다에 국한되지 않고 확장됩니다.

(3)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기 위해 에돔과 모압과 암몬, 두로 그리고 시돈까지 다섯 나라의 사신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바벨론을 대항하여 연합전선을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모임 가운데 예레미야가 나타나 명예를 사신들에게 전해 주며 각 나라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6-7)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나라가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와 함께 모여 있던 다섯 나라의 사신들은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비보(悲報)를 가지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와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을 것이며 3대까지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만 보면 모든 일의 주체가 바벨론 혹은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행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대와 주변 국가들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한 경계를 이어서 말합니다.

(9-10)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시드기야와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이나 혹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지금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듣기 좋은 말이 아닌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동시에 들려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영적으로 분별하는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주의하라(12-15)

바벨론의 멩에를 떼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며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12)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아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멩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유다 백성들이 듣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은 바벨론의 멩에를 떼고 포로의 삶을 살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며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멩에를 떼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시드기아는 희망적이고 상황이 나아질 것을 바라면서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여러 나라와 연합까지 하려고 했으나 그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간혹 우리의 생각이나 다른 이들의 조언으로 어떤 일들을 실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다른 방법이나 요행(僥倖)은 없습니다. 신앙에는 오직 정도(正道)만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

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통해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다름을 묵상해 봅니다.

(이사야 55:8)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간구해야 하는 것(16-22)

하나님께서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18)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예와 유다의 왕의 궁전예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사람은 상황이 어려워지고 심적으로 연약해지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듣기 좋은 말로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미혹하였고, 백성들은 계속 미혹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미혹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

이 아니라 남아있는 성전의 기구들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여호와께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에서 허황된 간구가 아닌 지금 가지고 있는 성전의 기구만이라도 지키게 해달라는 실질적인 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그리고 오래 한다고 모두 올바른 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 혹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기도는 올바른 간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누가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31)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필요를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간구가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의 삶을 끝내길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심판을 받는 기간이기에 단지 지금의 상황을 피하려는 간구는 올바른 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힘쓰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에서도 올바른 간구를 하기 위하여 더욱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유다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22)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 와 이 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성전의 기구들은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리신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 역시 영원하지 않으며 바벨론의 강력한 세력도 절대적이고 영원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한이 끝났을 때 그것들을 되돌려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되돌려 두다’는 단지 돌아간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셨지만 다시금 회복을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 회복을 시키시며 나아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죄악에 넘어지는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며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세상의 듣기 좋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의 띠를 띠고, 어두운 세상에 말씀의 등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듣기 좋은 말들만 골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필요를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간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티를 띠고, 말씀의 등불로 어두운 삶을 비추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의 심판으로 명예를 메었던 유다처럼 우리의 삶에 명예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2.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힘쓰고 있는지 혹은 거짓 선지자들의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3. 우리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간구한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간구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4.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할 것인지 묵상해 봅시다.